



JCI 인증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2013 0708

Vol. 100

Smart Choice Best 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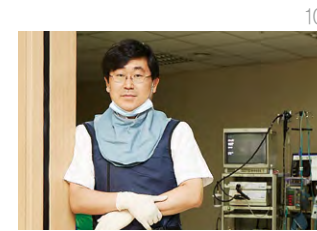
인하대병원

연중기획_ 암! 함께 이겨내요_ 암시리즈 12 취담도암 | Hello 닥터_ 소화기내과 정 석 교수 Medical point_ 취담도암, 쫓지 말고 정면승부로!



인하대병원보 1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인하대병원보 창간 100호를 기념하여 직원들의 축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10



19



27

인하대병원

Jul
+
Aug 2013 Vol.100



건강 한걸음

- 04 **격려사** 인하대학교 총장 박춘배
- 05 **발간사** 의료원장 박승림
- 06 **Editor's Letter** 함께 숨쉬고 함께 소통하며 걸어온 길

사랑 두걸음

- 07 **INHA Focus** "고지식 풍 선생과 일본섬표 파 선생"
- 연중기획_임! 함께 이겨내요. 암시리즈 12** **혜담도암**
- 10 **Hello 닥터** 소화기내과 정 석 교수
- 13 **Medical point** 혜담도암, 졸지 말고 정면승부로!
- 16 **Health touch** 노인 실명의 최대 원인 '황반 변성'
- 18 **인하섬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 19 **어디까지 가봤니** 경기 양평 소나무마을
- 22 **Special people** 연기자 김성원
- 24 **모르면 지는거다** 모디슈머 열풍, 내 마음대로 섞어먹는 별미

나눔 세걸음

- 26 **Global INHA** 해외의료봉사활동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28 최상의 서비스, 외국인 전용병동
- 30 **Today INHA** 파란자켓을 찾아 주세요
- 32 **희망천사릴레이** 남인천우체국 권병우 김배원
- 34 **특특 약물상당** 선크림 사용 '짱' 하게 하기
- 35 **병원 탐방** 인천시광역의료원

INHA NEWS

- 36 **병원소식** 인하대병원소식
- 38 **Info desk** 발전기금 기부소식 + 파랑새 소식
무료공개강좌 + 홍보영상



표지_인하대병원보 100호 창간 - 창간 1호부터 100호까지의 병원보



희망과 공감의 선물



병원의 살아 있는 역사와 같이 호흡하며 수많은 독자층을 형성하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온 인하대병원 원보가 어느덧 100호를 맞이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1997년 창간된 인하대병원 원보는 그 동안 고객들에게 최신의 유익한 건강·의료 정보를 전달하고, 사랑과 나눔 등 따뜻한 스토리를 전해주며 희망과 공감을 선물해 왔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인하대병원 소식을 빠르게 알려줌으로써 '정보 전달' 과 '병원 홍보' 라는 목적을 달성하며 병원 원보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패러다임을 창출하였으며, 발간주기, 판형, 페이지수, 내용 등을 시대적 트렌드에 맞춰 업그레이드하면서 끊임없이 변신하여 왔습니다.

올해로 개원 17주년을 맞이한 인하대병원은 1996년 개원 이래 우수건강증진센터 인증(2005), 대학병원 최초 대통령 표창 수상(2009), JCI 최초 인증(2010), 국가지정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선정(2012), 국내 최초 의료원 전 부문 JCI 재인증(2013) 획득 등을 통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북아시아의 메디컬 허브로 글로벌 헬스케어의 꿈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좋은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인하대병원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훌륭한 원보를 제작하기 위한 병원 편집자들의 애정과 노력에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Smart Choice Best Care' 를 실현하는 인하대병원이 세계가 인정하는 안전한 병원, 고객이 감동하는 최상의 진료와 서비스를 실천하는 병원, 사랑과 봉사 정신으로 온 세상과 함께하는 병원,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병원으로 우뚝 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인하대병원 원보 100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인하대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인하대학교 총장 박 춘 배

우리의 소중한 문화이고 역사입니다



창간호부터 이번 100호 원보 제작까지 도움 주신 많은 교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과정을 겪었던 만큼, 앞으로도 교직원의 관심과 제언을 적극 수렴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대단히 감동적인 일이다”

개원 17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 인하대병원이 100번째 원보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인하대병원 개원 1주년 및 지역주민과의 신뢰 증진과 병원 발전을 목표로 창간된 원보는 1997년 5월 인하중앙의료원 통합 원보로 최초 발간된 이후,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규격 및 내용으로 발전하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창간호부터 이번 100호 원보 제작까지 도움 주신 많은 교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아보면 100호 원보를 발간하기까지 크고 작은 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1997년부터 시작된 초유의 국가경제위기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간의 이품을 겪기도 하였고, 발간 주기를 변경하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과정을 겪었던 만큼, 앞으로도 교직원의 관심과 제언을 적극 수렴하여 진솔한 우리 병원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색 바랜 창간호의 원고들을 보며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지금은 비록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 시절 함께했던 옛 동료들의 사진을 보며 아련한 그리움이 느껴집니다. 현재 같이 생활하고 있는 동료들이지만 15~6년 전의 풋풋한 사진을 보며 동행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창간호부터 금번 100호까지의 원보 모두가 우리의 소중한 문화이고 역사입니다.

또한, 향후 발간되는 한 권, 한 권이 모여서 인하대병원의 새로운 역사가 계속 만들어질 것입니다.

역사는 미래의 투영이라고 하듯이 원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명실공히 인하대병원 문화의 길잡이로 자리매김하여 미래에 대한 약속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료원장 박 승 림

함께 숨쉬고 함께 소통하며 걸어온 길

99년의 여행을 마쳤습니다.

이제 100호라는 또 하나의 여정을 시작하려합니다.

새로운 또 하나의 발걸음을 내딛기에 앞서 원보의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봅니다.

인하대병원보는 1997년 5월 대의 홍보 이미지차원의 제고와 소통의 필요성에 따라 몇 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격월 원보 1호인 5·6월호가 창간되었습니다.

그러나 IMF 등의 영향으로 인해 불가피 일정기간의 휴간기를 거치게 되며, 1999년 하반기에 원보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2000년 1월 국배판 24페이지의 새모습으로 다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휴간기를 거치고 재탄생을 기념하는 기념사에서

기사의 내실과 새롭고 유익한 각종 의료정보의 전달, 그리고 고객들께 알려야 할 우리 의료원의 참다운 홍보에 그 편집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도 병원 원보가 선도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바램처럼 이후로 원보는 병원의 살아 숨 쉬는 역사와 함께 호흡하며 수많은 소통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격월에서 월간으로 변신하기도 했으며,

2006년 3월부터는 다시 울컬러 격월간으로 발간하고 디자인 및 판형을 바꾸며

페이지를 44페이지까지 늘리고 지속적 변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 급변하는 시대적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 개월의 준비 과정을

통해 판형을 더 키운 국배판 44페이지로 한 차원 높은 내용과 비주얼로 더욱 새롭게 변모한

94호 병원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100호를 목전에 두고 지금까지의 병원보가 있기까지 훌륭한 원보 제작을 위해

수많은 땀을 흘린 병원 홍보팀 편집자의 노력과 직원들의 애정 어린 노고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앞으로도 알차고 빛나는 인하대병원보로

거듭나게 할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글_편집팀)



JCI 재인증 획득의 의미와 도전

“고지식 풍 선생과 일본쉽표 파 선생”

(글_최선근 교수, 인하대병원 적정진료관리실장 / 외과)

Prologue

나는 이 병원의 적정진료관리실장이다. 혹자는 내가 JCI용이라고 들 한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벌써 이런 생활이 한 달이 다되어 간다. 새벽 한 두 시 경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면서 집에 들어와 보면 게슴츠레 반쯤 감긴 눈으로 나를 맞이해주는 이는 큰 아이뿐이다. 이 녀석도 퇴원한 지 하루밖에 안 되었다. 민폐다. 하필 거사 열흘 전에 틱빠가 골절되어 우리 병원에 입원할게 뭐람. 심지어 이틀 전에야 퇴원했다. 안 그래도 거사준비에 정신이 없는 차에..... 그래도 난 다행이다. 전임자 교수님은 그 시기에 애가 수험생이었다고 했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해 본다. 아쉬운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언제인가 확인할 틈도 없이 불청객 JCI 재인증 수검은 이렇게 내 앞에 와있었다.

Chapter 1

고지식 풍톤, 일본 쉽표 파주키, 엄마 엘렌, 동네아줌마 오즐렘, 무표정 폴린... JCI 재인증 수검자들이며 앞으로 닥쳐 동안 내가 상대할 강적들에게 붙인 닉네임이다. 그냥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 오전 전투를 끝내고 잠시 숨을 고르려 하면 최전방 총알받이 병사들의 무용담이 난무한다. “풍톤은 너무 에프엠이야. 도대체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아마 밥 먹을 때도 밥알 하나하나 세어가며 먹을 걸?”

“파주키는 왜 질문을 하나 하고 나면 일본이나 쉬고 다음 질문을 하나고요? 지루해.”

“엘렌은 정말 엄마 같아. 친절하고 엘레강스하고 귀티나기까지 내 스타일이야..”

“오즐렘은 만담가야 만담가. 단 일본도 안 쉬고 속사포 랩을... 꼭 동네 목욕탕 아줌마 같아.”

“폴린은 도대체 그 속을 알 수가 없어. 포커페이스야.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그들도 알고는 있을까? 우리 사이에서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밀담이 오간다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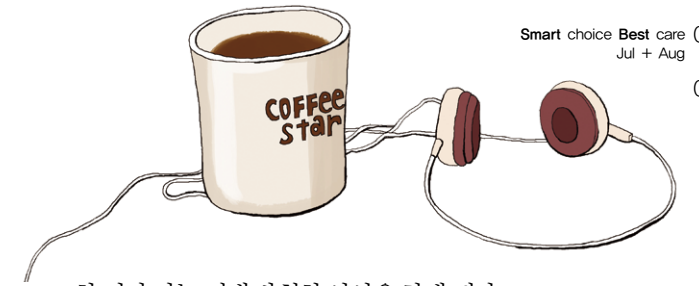
Chapter 2

내 휴대폰은 당최 쉴 틈이 없다. 메신저 카톡은 잠시도 안 쉬고 울려댄다.

“몇 층 거쳐 응급실로요.”

“여긴 대박! 완존히 쪽박 찼음.”





“거기 갈 것 같은데 이럴 땐 이렇게 답변하면 오케이.”
우리 QI식구들은 거사 기간 내내 의사소통을 이렇게 하곤 했다.
그런데 이런 밑담에 정제 모를 이가 끼어 들었다.

넉네임이 ㄱㅇㅎ.
‘이 친군 후배 교수 아무개인데, 이 친구가 여기 낄 리는 없는데 뭐지? 스파이인가?’

서베이어들의 동선을 세밀히 파악하여 실시간으로 올리는 이. 도 대체 누군가? 나는 긴장감에 잘 보이지도 않는 휴대폰 자판을 눌러가며 묻는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고?”
일 초도 안되어 QI ㅂ대리가 댓글을 단다.
“경비대장님이요. 같은 이름 다른 사람. 실장님, 우리 편이에요!”
정말로 고마운 분이다. 본인 고유 업무도 바빠실 터인데.....

‘가만, JCI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었네!’
내 편견이 깨어지는 첫 번째 순간이다.



Chapter 3

병동을 열심히 훑고 다니던 풍 선생이 JCI 대표선수 ㄱ간호사의 너무나도 훌륭한 선방에 실망(?)하고 내려가려던 차에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우연히 서 계시던

모 여사님께 다가선다. 음흉한 미소를 머금고.....
난감해하는 여사님께 이어지는 속사포 질문들. 유해폐기물질 처리할 때 어떻게 하는지? 대충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다. 포기했다.

‘또 하나의 쪽박이 나오겠군.’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반전이 있었다. 풍 선생을 이끌고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여사님. 그런 풍 선생 당황하고, 대한민국 아줌마의 대표선수 여사님은 너무나도 능숙하게 개인정보장구 껌차시고 이러쿵저러쿵..... 청산유수 달변 이어지는 풍 선생 특유의

돌고래표 샤우팅,
“퍼펙트!”
이것으로 상황종료였다.

나의 잘못된 두 번째 편견도 이렇게 깨어져 가고 있었다.

Chapter 4

내가 전담하는 풍 선생은 고지식하긴 해도 감동에 약한 것 같다.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트레이니였는데 이제는 정식 서베이어니 얼마나 스스로 대견하겠나! 풍 선생이 근무하는 태국의 병원 홈페이지와 개인 페이스북을 살펴보았다. 역시 본인이 JCI 서베이어임을 알리는 미사여구로 온통 도배되어 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이는 투철한 책임감으로 무장하고 있어서 설득이 쉽지 않다. 진한 감동만이 해결책이다.

‘음, 승부는 이미 끝난 것 같군. 여기서 내가 진 걸로.’
사실 나는 시술을 주로 외래에서 많이 하는 임상과로 가자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모 과로 안내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그 과가 어떤 과인가? 하루 종일 외래에 전공의 선생님들이 바글대는 곳이 아닌가? 그간 별 성과가 없었던 풍 선생이 한 건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어느새 나는 그 기회를 너무나도 쉽게 상납해버린 배신자가 되어 있었다.

“선생님! 전공의 선생님들 답변 어눌하다면서요. 자살골 쏘셨네요! 어쨌든 힘닿는 대로 해볼게요.”
통역사 ㅇ선생이 나에게 한 말이다.

마침 ㄱ전공의 선생이 시술을 마치고 나오는 중이다. 나는 풍 선생 바로 뒤에서 조심스럽게 수화 준비(?)를 했다. 다년간의 경험에 따라 뒤에서라도 손짓 발짓으로 가르쳐 줄 요량이었다. ㅇ선생도 이를 알아차리고 동시에 전투모드다.

그런데, 갑자기 풍 선생이 뒤를 보면서 나에게 묻는다.
“뭘 하세요? 최 선생님! 눈치 빠른 풍 선생.
나의 마지막 필살기마저 소용이 없을 것 같다. 더는 방법이 없다.

이제는 정말 ㅇ선생의 활약을 기대하는 수밖에..... 그런데 풍 선생 눈길의 머문 곳은 ㄱ선생의 불룩한 가운 주머니 속 손때가 묻은 책자.

‘이런, 가운의 위생 상태를 지적할 모양인가? 왜 하필 오늘따라 더러운 책을 주머니에...’
일초 뒤에 깨어질 쪽박이 예상되는 순간이었다.

예상대로 풍 선생 왈.
“그 책자는 뭐가요?”



ㄱ선생 수줍게.....
“아, 이거요? 병원서 JCI 공부하라고 준 책인데요, 너무 더러워서. 어쨌죠? 죄송합니다.”

‘애는 어찌긴, 죄송하긴 뭘... 정말 잘했다. ㄱ아!’
속으로 나는 쾌재를 불렀다. 아-아 이럴 수도 있는가? 불과 한 달 전에 나누어 준 책인데... 과장 많이 보태서 마치 몇만 번은 본 것 같이 너털너털 겉장은 헤어지고, 챗터마다 쓰리엠 플래그로 표시가 되어있고, 내용마다 색을 달리하여 형광펜으로 밑줄 째~. 발랄게 상기된 ㄱ선생의 얼굴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다. 그동안 준비하면서 말 안 듣는다고 전공의 선생님들을 타박만 해왔던 내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다.

Chapter 5

“어! 이 병원은 교수님들이 직접 발표하시나 봐요? 그것도 다섯 분이나요!”
통역을 위해 참석한 ㅇ와 ㅇ선생이 의외라는 듯 중얼거린다. 장소는 3층 강당. 표준진료지침과 임상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시간이다. 이미 전날 의무기록 리부시간에서도 전공의 선생이 아닌 두 분의 교수님들께서 직접 인터뷰에 참여한 터라 우리로서는 그다지 낯설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다른 병원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드문 상황에 통역사 선생님들은 물론, 풍 선생과 과 선생도 적잖이 놀란 모습이다. 처음에는 다른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QI팀 담당자나 해당 부서의 직원이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던 차에 우리보다 앞서 거사를 치른 모 병원에서는 극소수이긴 했지만, 교수님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래서인지 진행도 부드러웠다는 정보를 입수



한 터라 나는 이내 발칙한 상상을 하게 된다.
‘거긴 되는데 우린 왜 안 돼? 그럼 우린 전부 교수님들이 하지 뭐! 자신은 없었지만, 이젠 직접 부딪혀 보는 수밖에..... 그렇지만 이런 내 생각이 괜한 걱정임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결론은 대성공이었다. 많은 교수님께서 미천한 소생의 무리한 요구에 쾌히 응해주셨고 심지어 몇몇 교수님들은 우리 QI식구들이 미리 준비해드린 대본(?)마저 스스로 수정해가며 적극 참여해 주셨다. 아직도 나는 마지막 날 엄마 엘렌이 엘레강스한 미소와 함께 내게 해준 말을 잊을 수 없다.

“그날은 참 잘했어요.”
초등학교 시절 개학 전날, 밀린 일기 몰아 쓰고 담임선생님께 잘했다는 도장 받았을 때가 이런 기분이었을까?
그날을 포함해서 이번 거사에는 정말로 많은 교수님의 도움이 있었다. 나와 이진수 교수를 제외하고도 환자추적조사에 세 분, 인터뷰에 다섯 분, 프레젠테이션에 또 다른 다섯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무기록 검토에 네 분까지 무려 열일곱 분의 교수님들이 나로 하여금 인생 헛살지 않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

Epilogue

학창시절 내 별명은 ‘고장난 독일전차’ 였다. 왜 이런 별명을 친구들이 지어주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아마 현명하지는 못해도 우직스럽게 제 할 일은 하는 녀석이라는 의미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나는 정치는 모른다. 꿈수는 더더군다나 부릴 줄 모른다. 지난 25년간 학생으로서, 또한 전공의와 전임의로서, 그리고 부족하지만 교수로서 나를 허락해주고 함께해준 나의 모교 인하대병원에 대해 감사하고 더 나아가 인하대병원이 환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좋은 병원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2013년 6월 11일 오전 5시 58분. JCI 본부는 인하대병원의 성공적인 JCI 재인증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첫날 악몽으로부터 시작되어 길몽으로 끝을 맺은 나의, 아니 우리의 JCI 도전기는 분명 해피엔딩이었다고 생각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번 재인증을 위해 애써 주신 분들이 반드시 더 게실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그분들의 땀과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정석 교수

환자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 우선 해결하고, 독한 암, 살살 다스린다!

할 일이 많아 매력인 췌담도 분야

정 교수는 소화기내과에서 다루는 소화기질환 중, 췌장 및 담도에 관해 발병되는 모든 질환을 치료한다. 췌담도 질환은 특화된 특수내시경으로 진단과 시술을 하기 때문에 내과이면서 역동적인 외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분야라고 정 교수는 생각한다. 담석 질환 같은 경우 치료 효과도 드라마틱하여 환자와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고 치료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한다.

그러나 췌담도암의 경우, 이와 반대란다. 매우 예후가 나쁘고 치료가 쉽지 않아 치료결과가 나쁜 경우도 많아 의사로서의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은 정 교수다. 현대의학의 한계이지만 학문적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상당 부분 연구가 미진한 미개척 영역이라는 점, 할 일이 많다는 점 때문에 정 교수의 마음은 분주하다. 안쓰러운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사명감으로 말이다.

“어쨌든 의학적 한계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최선의 방법은 가장 잘 치료할 수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죠, 가족 같은 마음으로, 환자나 함께 치료 계획을 상의하고 환자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하는 의학적, 혹은 심리적, 경제 사회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로 존재하는 이유를 명쾌하게 해준 환자의 편지
의학적 한계의 아쉬움을 이야기하다 보니 담낭암을 진단받은 40대 여자 환자분께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다.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지 못하고, 담도폐쇄 때문에 담도 내 금속 배액 관을 삽입한 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데 항암치료에 반응이 매우 좋아 기적적으로 암 재발이 없는 상태로 5년 이상 생존해 암은 완치된 셈이다. 수년간의 투병생활에도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묵묵히 치료를 받던 중 치료과정의 후유증으로 현재 간 기능 부전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정 교수는 말한다.

“어느 날 환자분에게서 베타이 선물을 받았습시다. 그 안에 들어있던 작은 카드가 들어 있더라고요. ‘선생님, 그동안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 아시죠? 제가 드리는 이 선물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읽는 순간 짧은 글귀가 제 가슴에 와 닿았고 저에겐 감동이었습니다.”

정석 교수는 입원 환자의 회진을 제일 먼저 돌고 외래 진료 전 환자의 상태와 검사 결과, 진단과 치료 계획을 정리, 기록하며 매일 아침을 시작한다. 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자신이 직접 본 것만 믿는다는 원칙이 또 있다. 검사 사진도 일일이 보고 확인하는데 이는 사람이 환자를 보는 일이다 보니 작은 거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의 진료 열정 때문이다.
(글_ 이정희 자유기고가 사진_da view studio 송인혁 실장)



| **연중기획** 암! 함께이겨내요 / 암시리즈 12 철탄도암

2011년 9/10월호-유방암, 11/12월호-대장암 2012년 1/2월호-소아암, 3/4월호-위암, 5/6월호-간암, 7/8월호-혈액암, 9/10월호-폐암, 11/12월호-갑상선암
2013년 1/2월호-자궁난소암, 3/4월호-두경부암, 5/6월호-전립선암, 7/8월호-철탄도암, 9/10월호-뇌암, 11/12월호-피부암

지금도 새록새록 그때의 감동이 생각날 때면 정 교수는 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였는지, 의사로서 존재해야 이유는 무엇인지 명쾌한 답을 준다.

환자 중심 진료를 강조하는 정 교수의 가장 첫 번째 진료 원칙은 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가장 관심을 갖는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의학적 지침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환자나 그의 가족사정에 따라 요구하는 방향으로 들어주려는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간혹 치료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는 환자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치료 방침을 결정한다고 한다.

과묵, 그러나 환자와는 말 많은 남자

세상은 충분히 아름답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려고 노력하는 마음 갖기를 참살이의 첫 번째라고 정 교수는 생각한다. 그리고 기독교인 정 교수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데 삶이 바쁘고 고단할 때에라도, 긍정적인 생각은 삶에 즐거움과 기쁨을 준다고 말한다.

다행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은 정 교수가 좋아하는 것들이라 늘 즐기고 있고 가족이 다 함께 수영을 배우며 사랑과 건강을 챙기고 있다.

그다 말이 없기로 이름난 정 교수다. 말수만 없겠는가? 웃음도 별로 없다. 그런 그의 스트레스 해소 중

나가 노래 부르기이다. 변진섭의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이 애창곡 이란다. 가사를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내가 미웠어..... 꽃 한 송이 주고 싶어.....내 가슴 모두 태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오직 사랑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 교수의 진료 마인드가 담아 있는 듯하다. 의료의 한계에서 오는 아쉬움, 그러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능하면 들어줄 수 있는 건 모두 해주고 싶은 그런 열정 말이다.

정 교수는 걸리면 치명적이지만 철탄도암 환자 수는 많지 않아 환자 당 진료 시간을 길게 잡을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암 환자는 질문이 많은데 모두 답변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란다. 정 교수는 평생시 아껴놓았던 말을 환자에게는 다 쏟아낸다.

단순히 환자의 질병을 다스리는 의사가 아닌, 환자에 대하여 진실로 공황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진료하는 것 또한 그의 바람이고 목표이다.

환자의 눈동자, 고통의 눈물, 또는 완치 후의 아름다운 미소를 생각하면 낄 옷 같은 수술복을 입고 7시간 이상을 수술실에서 있어도 결코 무겁지 않다. 투병으로 외로운 그들의 마음마저 어루만져 주고 싶은 바람뿐이다,

이렇게 온전히 환자에게 빠질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는 부모님과 옆을 지켜주는 아내의 사랑을 이야기 하는 정 교수의 미소는 수줍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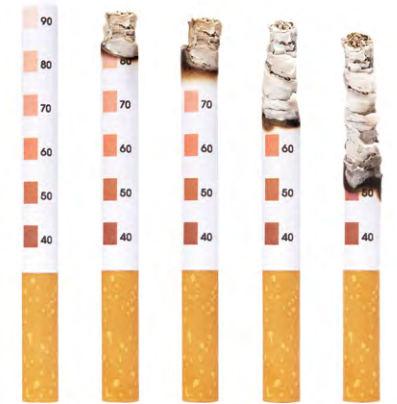
Profile_

정석 교수는 1992년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소화기내과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전문치료분야는 철탄암, 담도암, 담석증 등 담도·철탄질환으로, 철탄도암 정복을 위한 신개념의 기능성 담도 스텐트 개발과 신 의로 기기, 내시경치료 및 약물치료에 관한 동물실험과 임상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약물전달시스템을 이용한 암치료에 치료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2009년 미국 유타대 약대에서 연수를 하였고, 그 동안 국제공인학술지에 30여 편에 달하는 논문들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내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철탄도학회, 그리고 대한소화기암학회 정회원으로서, 대한소화기암학회 학술위원,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내시경기기기술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대한내과학회지와 Journal of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Europe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 Hepatology, Surgical Endoscopy 등의 국제공인학술지의 논문심사위원으로 활약 중이다.



◀ 특수내시경 시술 중인 정석 교수
◀◀ 입원 환자의 진료를 시작으로 아침을 연다

철탄도암, 쫓지 말고 정면승부로!



철탄암 — M U S T N O T



철탄암의 발생은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담배, 비만, 술, 고칼로리 음식 등에 의한 환경적 요인에 장기간 노출되면 철탄암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흡연자에게서 2~5배 가량의 철탄암 발생률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담배는 철탄암의 강력한 병인으로 알려져 있다. (글_ 정석 교수 / 소화기내과)

55세 이모 씨는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하며 특별한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분으로, 최근 몸이 나른하고 상복부에 간헐적인 불편감이 있었으나 바쁜 사회생활로 인해 특별히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 최근 오랜만에 만난 친구로부터 얼굴이 노래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건강검진을 받았고, 정밀검사 이후 철탄암을 진단 받았다. 이와 같이 철탄, 담관에서 발생하는 암들은 뱃속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어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특히 자가 진단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사실 철탄, 담관 등의 용어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몸 안의 다른 장기보다 생소하게 느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발생하는 암들은 더욱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게 된다. 그러나 2009년 우리나라의 암 발병률 순위에 따르면 담관암과 철탄암은 각각 7위, 8위를 차지할 만큼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암들이며 늦게 발견될 경우, 예후가 극히 불량하므로 이 병들에 관하여 잘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철탄(이자)의 구조와 기능
철탄은 우리 몸의 상복부 중앙과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장기로서, 길이는 12 ~ 20cm 정도이다. 납작한 모양으로 회색이나 검은색을 띠고 있다. 소화 효소가 포함된 소화액을 만들어 십이지장으로 배출하는 기능 및 인슐린, 글루카곤 등의 호르몬을 만들어 혈액의 당 수치 등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이다. 철탄을 대략적으로 구분하면 십이지장에서 가까운 순으로 두부, 경부, 체부, 미부의 네 부분으로 나뉜다.

철탄암의 병인
철탄암의 발생은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담배, 비만, 술, 고칼로리 음식 등에 의한 환경적 요인에 장기간 노출되면 철탄암이 발생할 수 있다. 드물지만 부모, 자식 간의 유전자 전달을 통해 가족성 철탄암이 발생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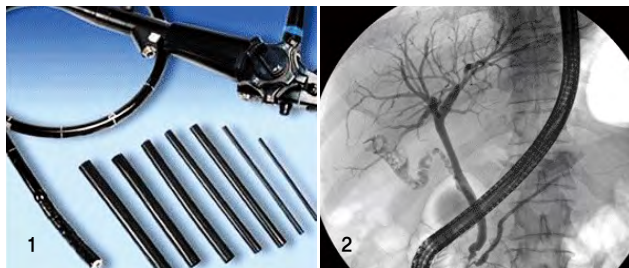
임상 증상

췌장암 환자들은 주로 황달, 복부 통증, 체중 감소, 식욕부진 등을 호소하게 된다. 황달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가려움증을 많이 호소하며 이외에도 회색변, 붉은색 소변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특히 췌장 두부에 암이 생겼을 경우, 황달이 다른 위치에서 발병한 췌장암에 비하여 흔하고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기에 발견되게 된다. 복통의 양상은 상복부에서 발생하여 등 쪽으로 뻗치는 듯한 통증이며 종종 앞으로 몸을 숙이는 자세로 통증의 호전을 보이기도 한다. 통증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간헐적인 통증으로 식사 후에 증상이 악화되기도 한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에 정상체중의 5% 이상의 체중감소가 흔하며 식욕부진, 복부팽만감, 설사, 지방변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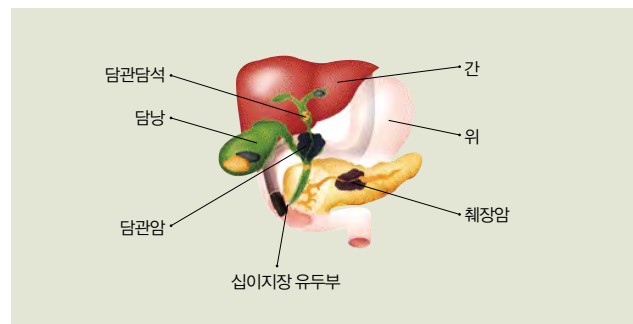
복부 전산화단층촬영검사, 자기공명영상검사, 또는 내시경 초음파검사로 진단할 수 있다. 영상 진단에서 외과 수술로 절제

<역행성 담췌간 내시경 검사>



1. 담도 및 췌장의 질환에 사용되는 특수내시경 검사로 담관 결석의 진단 및 치료에 유용한 검사이다.

2. 담도 및 췌관의 협착, 담도암, 췌장암 등의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직 검사 없이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췌장암의 소견이 확실하지 않거나 수술이 불가능한 병기의 췌장암인 경우, 내시경초음파 유도하에 세침흡인 세포진검사나 조직 생검을 시행한다.

치료

수술적 치료 : 췌장암의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치료는 외과적 절제이다. 수술이 가능한 소견은 췌장 외 다른 곳으로의 전이가 없고, 상장간막 정맥과 간문맥 연결 부위와 복강동맥이나 상장간막 동맥으로 암의 침범이 없는 경우이다. 절제는 췌장, 십이지장, 공장, 총담관, 담낭, 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절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췌장암의 초기 진단이 어려운 특 때문에 완전 절제가 가능한 수술은 췌장암 환자의 불과 10~15% 정도만 가능하다. 다행히 초기에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발하는 경우가 흔하여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20%로 낮은 편이라 항암치료나 항암과 방사선 동시 치료가 필요하다. **보존치료** : 대다수의 처음 췌장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경우,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임상에서는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보다 증상을 완화시키고 생존기간을 늘리기 위한 보존적인 치료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존적인 치료는 췌장암으로 인해 담관이 막혀 생기는 폐쇄성 황달이 발생하였을 경우, 내시경 등을 이용하여 담관에 금속 스텐트를 삽입하여 담즙을 배액시켜 치료한다. 그리고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여 암의 진행을 늦춰 생존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췌장암의 통증은 매우 심하므로 마약성 진통제로 조절하며 통증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신경차단술 등의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다.

예방

아직 췌장암 예방을 위한 권고 기준은 없으며, 위에서 언급했던 병인들을 회피하여 예방한 것을 권장한다. 흡연은 췌장암의 발생률을 2배에서 크게는 5배 가량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금연은 췌장암 예방에 필수적이다. 고지방, 고칼로리 식사를 피하고 적절한 운동으로 비만을 방지하고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하는 식생활 개선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관암 — BILIARY TRACT



담관암의 검사로는 초음파검사, 전산화단층촬영검사, 자기공명영상검사, 내시경 초음파,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을 이용하여 진단을 하게 된다. 혈액 검사에서는 알칼라인 포스파타아제와 혈청 빌리루빈 등 간기능검사 수치가 증가하는 것이 특징적인 소견이다.

담관의 구조와 기능

담관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보내는 관이다. 담즙은 간세포에 의하여 만들어져 간 외부로 나와 십이지장의 유두부를 통해 배출되게 된다. 담관은 간 속에 있는 경우 간내 담관, 간을 벗어나 십이지장 유두부까지 이어지는 담관을 간외 담관으로 구분한다.

병인

담관암 진단 시 병인을 밝혀내기는 드문 일이다. 그러나 간내 담석증에 의한 만성 담즙 정체, 만성 염증이나 만성 감염 또는 발암물질 노출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원발성경화성담관염, 자가면역성 질환, 간흡충증과 같은 간담관 내 기생충 감염, 선천성 기형, 선천성 간섭유증 등의 질환도 담관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상

췌장암과 마찬가지로 초기 증상이 없다. 그러나 담관암이 진행되면 담관이 종양에 의해 막혀 담즙의 흐름이 차단되면서 통증이 없는 황달과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다. 비특이적인 증상으로는 체중 감소, 피로감 등이 발생할 수가 있다.

치료

담관암의 완치를 위한 유일한 치료법 역시 외과적 절제이다. 그러나 담관암 진단 시에 40% 정도의 환자에서만 외과적 절제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 절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발이

빈번하여 수술 후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담관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거나 국소적으로 많이 진행될 경우, 외과적 절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담관암 역시 췌장암과 마찬가지로 담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발생하는 황달을 내시경 혹은 경피적으로 스텐트를 삽입하여 담즙을 배액시켜 증상을 완화시킨다. 그리고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이용하여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된다.

예방방법

담관암의 예방책은 없으며 병인을 피하면서 예방하는 수 밖에 없다. 간내 담석증, 원발성경화성담관염, 자가면역성 질환, 간흡충증과 같은 간담관 내 기생충 감염, 선천성 기형, 선천성 간섭유증 등의 질환이 있을 경우 정기적 검진 및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선천성 기형 중 담관낭종 같은 경우 수술적인 절제를 시행하여 담관암의 발생을 예방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췌장암, 담관암에 대하여 전반적인 증상, 치료, 예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과거 이러한 질환은 치료가 힘들고 치료 후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난치병으로 생각하고 진단과 동시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진단 및 치료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들 질병에 대한 치료의 성과도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췌장암이나 담관암이 진단되면 치료를 계획할 때 보다 적극적인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하다.

●문의 : 소화기내과 ☎ 032-890-2224



‘연령(나이)관련 황반 변성(ARMD)’의 이해와 치료 노인 실명의 최대 원인 ‘황반 변성’

연령관련 황반 변성이란?

선진국에서는 법적 실명(시력이 0.02 이하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실명에 준하는 단계로 정의)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른 삶의 질(QoL, Quality of Life) 저하에 중요한 원인으로 밝혀져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초기 또는 중기 단계의 시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건성(Dry Type, 또는 위축성 Atrophic Type)과 신생 혈관이 발생하여 심한 시력 감퇴를 일으키는 습성(Wet Type, 또는 삼출성 Exudative Type)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건성에서 습성으로 이행되기도 하는 질환이다.

병명에서 알 수 있듯이 노화와 관련이 있어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건성과 습성을 합해 60세 이상에서 13.4%)이 증가한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우리의 현실에서 병의 이해와 치료에 사회적인 관심과 더불어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그 중요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남녀 간의 발생빈도에 차이는 없으나, 몇몇 연구에서는 여성이 조금 더 유병률이 높다는 보고도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위험인자 중 노화가 강력하고 확실한 위험인자이며, 심지어 40대 초반의 연령군에서도 발생이 보고된 바 있다. 그 외 밝혀진 위험인자로는 흡연(비흡연자보다 2배 ~

2.5배)과 인종(백인이 흑인보다 약 3.5배 높음), 최근에는 유전적 소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 염증 관련, 비만, 영양(항산화제 부족 등), 백내장 수술을 포함한 안과적인 수술력, 심혈관을 포함한 전신질환(고혈압 등) 요인, 자외선 노출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증상

초기의 시력저하를 느끼지 못하는 단계에서는 진행될수록 시력감소, 변형 시(물체의 형태가 왜곡되어 휘어지게 보이거나 정상보다 크거나 작게 보임), 색깔 구분 능력의 감소, 물체의 연속성이 끊어지거나 부분적으로 가운데가 보이지 않음 등등이 나타날 수 있다. 한 쪽에 발생할 경우 5년 이내 반대편 눈에도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망막 전문의의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가진단

50세 이상의 경우 1년에 한두 번은 안과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금연, 항산화제 복용, 황반에 존재하는 유일한 카로티노이드 화합물인 루테인과 제아산틴 함유 음식(당근, 부추, 시금치, 케일 등) 섭취, 항혈관 신생효과 및 항염증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오메가-3 지사슬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 섭취하는 것이 좋다. 자가 진단으로는, 바둑판 무늬의 격자 그림(Amsler Grid)를 책읽는 거리에 두고 주기적으로 바둑판 줄이 휘어지거나 부분적으로 가려져 보이는 등의 여부를 관찰함이 좋다. 일상 생활에 있어서는 네모 칸이 그려져 있는 달력의 줄과 칸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치료

진행된 연령관련 황반 변성의 치료는 레이저 광응고술(Laser Photocoagulation), 광역학요법(PDT), 방사선 치료,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항혈관내피성장인자(Anti-VEGF) 유리체강 내 주사 치료, 스테로이드와의 병합치료 등이 있다. 맥락막 신생 혈관 제거술, 황반 전위술, 망막색소상피 이식술, 줄기세포 치료술



등 다양한 수술방법이 시도되고 있거나 현재 연구 진행 중이다. 황반을 포함한 망막은 재생되지 않는 조직으로 치료이전으로 회복은 한계가 있어 조기발견과 예방이 중요하다. 또한 2013년 안과연구학회의 보고에 의하면, 황반 변성은 안과적 질환이지만, 이 질환의 환자에서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배 높음이 보고된바 있어, 심혈관 질환의 예측 지표가 될 수도 있다.

몸이 1000냥이면 내 눈이 900냥이란 말을 명심하고, 정기적인 안과 검사로 실명 질환을 예방함이 중요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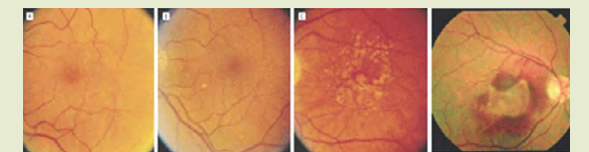
●문의 : 안과 ☎ 032-890-2400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연령 관련 황반변성이란 용어는 1990년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초기와 중기, 후기로 구분될 수 있다.

50세 이상에서 황반(사진기의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의 중심 초점이 맺히는 부위로 중심 시력을 담당함)에 드루센(Drusen)이라고 하는 세포의 침착물이 쌓이면서 과색소 침착, 탈색소를 동반하는 초·중기의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이게 된다. 황반 중심부에 위축성 반흔이나 신생 혈관이 발생하는 후기로 진행하게 되면 심한 시력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글: 문연성 교수 / 안과)

시기별 노년 황반변성



초기 황반변성 초·중기 황반변성 후기 황반변성

노년 황반변성 환자의 시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준호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자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성심을 다해 치료에 최선을 다해 주심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평생을 누워만 있어도,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달고 있을지언정 우리 가족 옆에만 있어주었음 바라왔습니다.

그것마저도 저의 욕심이었나 하는 원망과 저의 부족함 때문이었나 하는 자책감으로 도저히 남편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남편의 유골함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못 먹었던 소금도 통째로 올려놓고, 투병 전에 즐기던 맥주도 실컷 먹을 수 있게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대답은 없지만 저 혼자 떠들어 대기도 한답니다. 언젠가는 보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지만 아직은 함께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려 합니다. 아빠 잃은 아이들을 위해 남편 뉘까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의술을 베풀어 주신 교수님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

2013. 6 김동주 환자 보호자 드림



인공신장실 간호사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월, 수, 금요일이면 투석하러 갈 준비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옵니다. 어려운 상황에 갑자기 들어간 환자임에도 늘 따뜻하게 배려해 주신 수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께 머리숙여 감사함을 전합니다.

평생을 누워 지내도 오래도록 옆에 있어 주기만을 바랐건만 그것마저도 저의 욕심이었던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동안의 인연에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13. 6 김동주 환자 보호자



♥이 편지는 김동주 님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게재합니다.

* 본원에서 투석하시다가 최근 사망하신 가족께서 치료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료진과 신장센터 간호사들에게 감사의 글을 보내 주셨습니다. 가족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힘든 과정이지만, 꼼꼼히 손 글씨로 사연을 보내주신 가족에게 감사와 위로를 드리며 저희 직원들은 더욱 더 환자께 따뜻한 다가가는 기회로 삼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소나기

푸르게

예측하지 못했다. 소나기가 내릴 것이라곤. 아침나절 흘러들은 일기예보에도 비 소식은 없었다. 그런데 툭툭 두두둑... 씩아~, 거세게도 내린다. 하늘은 검고 물은 불어 그새 징검다리를 덮을 기세. 하필이면 우산도 없는 날, 그렇게 거센 소나기를 만났다. 문득 떠오르는 기억의 편린들. 그는 늘 소나기처럼 불쑥 전화를 걸어오곤 했었다. 사랑을 할 때도, 이별한 후에도. 그러나 그 기억 또한 한때 소나기처럼, 자날... 것이다. 푸르게 젖던 그 해 비 오던 여름날처럼. 그러나 누구든 당황하지 마시라. 양평에선 떠오를 기억도, 잊힐 기억도 소나기처럼 머물다 갈 테니.

(글/사진 이시목 여행작가)

내리는 날엔,



비 오는 날, 소나기마을의 여름 연가(戀歌)

사실은, 피할 새도 없이 후두둑 비가 내려 꽃했다. 청춘의 어느 날엔가 한 번쯤은 만났을 법한 소나기다. 소설 <소나기> 속의 소년과 소녀도 이런 빗속을 손잡고 달렸을지도 모를 일. 그래서 더 반가웠다. 상상해보시라. 소나기 내리는 날 소나기마을로 향하는 여행길의 낭만을. 그건 마치 눈 오는 날 마침 설국을 만난 것과 같은 기막힌 우연이고 선물이다. 여기에 더하여 이 길은 북한강을 끼고 흐르는 낭만의 길. 소년이 소녀를 만났던 징검다리처럼, 지날 때마다 풀물이 들듯 마음이 잔뜩 설렌다. 비 내려 몽실몽실한 비웃을 걸쳐 입어 구름 같은 강까지 더해졌으니 그 풍경이 오죽이나 고울까.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한 차례 감상소나기를 흠뻑 맞은 듯 기분이 달뜨는 이유다.

“그런데 참, 이번 계집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 달라고…”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 중에서)

그랬다. 소설 <소나기>에서 눈물이 맺혔던 건 순전히 이 대목 때문이었다. 소년과의 기억을 안고 떠나는 소녀의 잔망스러움이 보랏빛 도라지꽃처럼 슬펐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일까, 소나기마을에 닿자마자 도라지꽃부터 찾았다. 허나 시선에 든

건, “도라지꽃이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네. 난 보랏빛이 좋아!” 라고 말하던 소설 속의 소녀였고, 그녀와 함께 소나기를 피하던 소년의 모습이었다. 당연할 것이 이곳은 꽃밭이 아니라 소설가 황순원(1915~2000)의 문학테마파크, 그중에서도 그의 대표작인 소설 <소나기>의 감성으로 아름답게 채색된 공간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설 <소나기>가 만들어졌던 1950년대 농촌 풍경에 <소나기>의 문학적 향취가 더해진 공간이다. 재현의 키워드는 ‘수숫단’ 과 ‘징검다리’, 그리고 ‘소나기’. 우선 소나기마을의 메인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학관이 소년과 소녀가 소나기를 피했던 수숫단의 모양을 하고 있다. 소나기광장과 주변 산책로 곳곳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수숫단이 서 있고 오두막이 있으며, 개울이 흐른다. 물론 그 개울엔 맞춤형 듯 징검다리도 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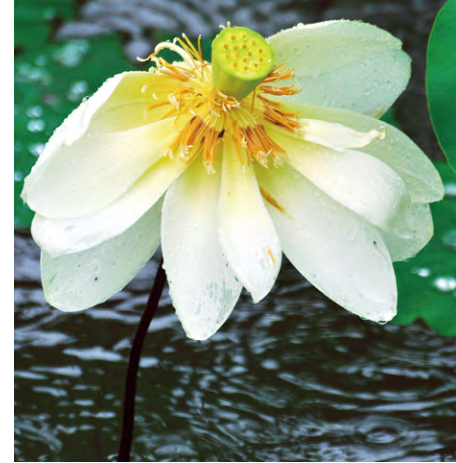
하지만 이는 조족지혈에 불과하니 이르게 감동하지는 마시라. 소설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건 역시 비, ‘소나기’ 다. ‘바람이 우수수 소리를 내며 지나’ 지도 않았는데, ‘보랏빛 먹장구름이 내려 앉지도 않았는데 맑은 하늘에 소나기가 ‘썩-’ 하고 쏟아지는 마법 같은 순간, 그 환희가 소나기마을엔 있다. 비록 스크린클라비에 불과하지만, 누구도 감히 토를 달지 못할 빛깔의 감성 소나기이니 부디 맘껏 즐겨 보시라. 그러다 상념이 깊어지면, 잠시 수숫단에 기대어 쉬어가면 될 일. 이 또한 소나기처럼 잠시 기억 속에 머물다 갈 테니 말이다. 아이들과 함께 라면 문학관 내부에 있는 ‘남꽃불 영상실’ 도 반드시 둘러보자. 소녀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그날’ 이라는 제목의 애니



메이션으로 상영하는 이곳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이는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실 일. 때로 여행은 충분히 알지 못한 채 가야 그 느낌이 더 풍성해지는 법이니 말이다.

징검다리 건너 강가, 연꽃 만나러 가는 길

소나기마을을 떠나서는 곧, 세미원으로 향하자. 비 내리는 여름날, 세미원은 묘한 울림을 주는 공간. ‘물을 보며 마음을 씻고 꽃을 보며 마음을 아름답게 한다!’ 는 뜻의 이름처럼 물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곳이다. 특히 이곳은 소나기마을의 감성파도 잇닿아 있어 소나기 내리는 날, 맞춤형 듯 찾아 걸기 좋다. 우선 산자락을 휘휘 돌아 걸어야 하는 소나기마을에 비해 산책의 강도가 얕아 우산을 든 채 산책을 즐기기에 좋고, 꽃이 무성해 그 잔치가 화려하다. 그 중에서도 여름날의 주인공은 단연 연꽃. 7월 한창 때를 지났어도 연밭의 풍치가 여전히 눈



Plus TIP_

황순원은 <소나기> 외에도 <학>, <나무들 비탈에 서다> <목넘이마을의 개> <카인의 후예>, <독 짓는 늙은이> 등 많은 소설을 남겼다. 소나기마을 산책로에 <학>과 <목넘이마을의 개>를 형상화한 시설물이 조성돼 있고, 문학관에 황순원의 작품세계가 디오라마 등으로 연출돼 있다. 소나기마을과 연계한 문학기행을 욕심내 본다면, 서종면 문호리에 있는 잔야박물관을 둘러볼 일이다. 소설가 김용만이 사재를 털어 마련한 이곳에선 세계의 대문호를 테라코타 작품으로 만날 수 있다. 용문사에 갈 때는 정세훈의 <용문사 은행나무>란 시를 찾아 읽어보면 좋겠고, 양수리 일대를 여행할 때는 김인숙의 소설 <양수리 가는 길>을 챙겨두고 떠나면 양수리의 물안개가 다른 시선으로 읽힐 테다.

교통

팔당대교에서 양평 방향 6번 국도를 탄다. 신양수대교를 건너자마자 오른쪽으로 빠져 양수리 방향으로 진입. 양수리에서 북한강을 따라 가는 352번 지방도를 타고 가다 서종면에서 우회전. 소나기마을 이정표를 따라 달리면 된다.

맛집

소나기마을에서 멀지 않은 서종면 문호리의 서종가든(031-773-6035)은 소박한 시골두부로 맛을 낸 두부전골이 맛있는 집이고, 세미원이 있는 양서면사무소 인근 연밭(031-772-6200)은 차진 연잎 밥을 정식으로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이 즐겁다. 여기에 세미원의 그 많은 징검다리들은 반가운 덩. 징검다리 건너 강가, 연꽃 만나러 가는 길이 마치 <소나기> 속 소녀를 만나러 가는 소년의 마음처럼 설렌다. 두물머리 입구에 있는 석창원으로도 가볼 일이다. 이곳은 자연과 환경관련 도서 2500여 권이 비치된 도서관 겸용 온실. 구불구불한 인공 하천엔 창포 등 물풀들이 가득한데, 빗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다 까무룩 잠이 들어도 좋을 곳이다.

“양수리로 오시게/그까지 가는 일 한 점 이슬 명에나 지워 다 버리고/그냥 맨 몸으로 오시게 (중략)/남한강과 북한강이 뜨겁게 속살 썬는 두물머리로 (하략)” (박문제의 시 <양수리로 오시게> 중에서)

비 내려 안개 물러왔다 밀려나는 두물머리에선 잠시 강물과 몸을 섞는 빗줄기를 감상해도 좋겠다. 기분 좋은 소란이다.

연기자 김성원



난 먹고 소비해야 하는 당뇨 스타일~
“당뇨를 친구 삼아 생활하니
즐겁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시다”

간편한 걷기 복장에 운동화, 크로스 백을 두르고 나서는 연기자 김성원 씨의 모습은 지금이라도 한바탕 산에 오를 기세다. 인터뷰 자리로 옮기는 발걸음을 따라가려니 헉헉거린다.
‘파리의 연인’, ‘웃어라, 동해야’의 회장님 연기자 김성원 씨, 그에게 당뇨 고수의 비법을 들어본다.
(글_ 이정희 자유기고가 사진_ 민스포토스튜디오&아카데미)

당뇨를 친구 삼아
살라
2017.7



욕심과 허세의 대식가 - 30대 초반 당뇨 환자로

“건강이라는 게 의사가 겁주려고 그러는 줄 알았지. 그러다가 내 몸으로 나타나니까 알겠더라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빨리 못 움직이고 눈에서 피가 날 지경까지 이르렀지.”

한창 전성기 때인 30대 중반, 동료 연기자 김세운 씨를 따라 종합검진을 하다가 당뇨를 비롯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동맥경화 등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맥주 1천 cc를 힘없는 사람은 한 손으로 들지도 못하지. 그걸 각지를 끼고 단숨에 들이켜. 그뿐인가? 하나 더 가져오라 해서 욕심과 허세를 부렸어. 기선 제압하고 싶은 쓸데없는 것이었어.”

과거를 회상하는 김성원 씨는 그뿐이 아니란다. 중국 집에 가면 음식 3개를 시키는 건 기본이었다고 한다. 위도 일반인의 2배로 늘어난 셈이다.

30대 초 당뇨를 진단받았지만, 연기를 그만둘 수는 없었다. 일하면서 외식을 하려니 온통 먹을 수 없는 것들뿐이다. 이때부터 아내의 사랑이 담긴 주먹밥 도시락으로 끼니를 대신하며 촬영장을 돌아다녔다.

“현미, 귀리, 울무, 보리 수수 등으로 밥을 하면 끈기가 없어 주먹밥이 안 만들어져. 그러면 뜨거울 때 뭉쳐서 달걀흰자로 옷을 입혀 프라이팬에 익혀내지. 아내 손이 다 뿔 정도야. 그렇게 80~90개에다 반찬까지 하면 한 보따리야.”

그때 아내를 너무 고생시켜 지금은 꿈쩍 못 한다고 엄살을 부린다. 지극정성으로 도시락 싸준 아내에게 전 재산을 상납(?)하는 것으로 마음을 표시한 김성원 씨다. 물론 용돈도 안 타서 쓰고 지금도 일명 ‘뽕뽕(?)’으로 자급자족하고 있다는 그의 미소는 아내의 사랑만 생각하면 마냥 행복하다.

난 먹은 만큼 소비해야 하는 당뇨 스타일

“난 많이 먹어야 하는 사람이다. 안 먹으면 저혈당이

와. 그러니까 먹으면서 먹은 만큼 소비해야 하는 당뇨 환자인 거지.”

약으로 떨어뜨리는 것보다도 먹고 많이 걸어서 당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5년 전 기사를 읽고 터득한 것이다.

그래서 걷기 전, 당 체크를 해보니 175였고 1시간 30분을 걷고 나서 체크해 보니 135로 떨어져 있었다. 직접 경험한 그는 차를 팔고 버스, 전철 타고 지금까지 만보계를 차고 다닌다.

당뇨 베테랑 김성원 씨는 자신과 같은 당뇨 환자에게 나를 위해서 절대 게으르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나를 위해서 철저하게 먹고, 관리하고, 검사하고,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라고 말이다. 이렇게 당뇨를 친구 삼아 생활하니 즐겁고 자연스럽게 이뤄지더라는 것이다.

또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고수의 비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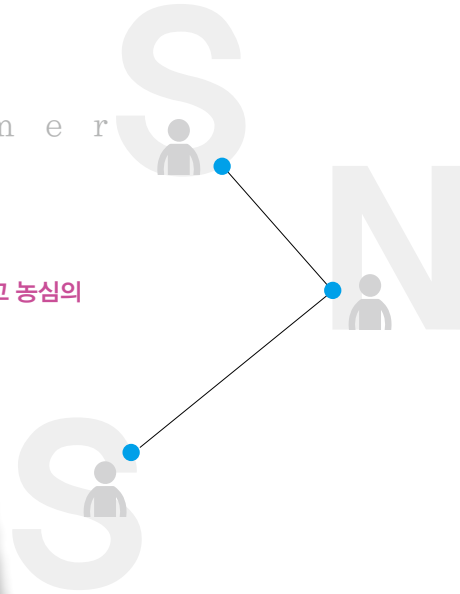
‘식전 당 체크 - 당 수치에 따라 식사 조정 - 식후 2시간 당 체크’를 강조한다. 얼마큼 먹을지를 결정짓는 식전 당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무엇을 언제 얼마큼 먹었는지를 기록해야 하는 것 역시 강조한다.

성우, 영화, 뮤지컬 공연, 드라마 3편 등을 촬영하는 전성기에 당뇨를 선고받았지만 1등이 아니면 삶은 그의 성격 때문에 관리가 쉽지는 않았다. 외국에서 2번의 저혈당으로 고비를 넘긴 이후, 나만의 당뇨 스타일을 터득하고 현재는 당뇨를 친구로 받아들이고 잘 지내고 있다.

무대를 훨훨 날던 당시를 회상하며 연기자 김성원 씨는 또 신나게 흥분한다. 그리고 또 아내는 당뇨에 대하여 그만하라고 하지만 대중교통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건강하시네요.’ 라고 건네는 인사가 싫지만은 않다. 내가 당뇨인 것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는 이젠 완고한 회장님보다는 ‘당뇨 올바른 알기’를 알리는 푸근한 이웃이다. 걷기를 생활화한 그의 걸음걸이는 청춘 못지않게 건강하다.

Seongwon, Kim

M o d i s u m e r



짜파구리 드셔보셨나요? 마켓으로 달려가면 그곳에는 없다. 그러나 SNS상에는 수백 개가 뜬다. MBC의 '아빠! 어디가?'의 먹방 유후의 후광효과로 대박난 짜파구리는 라면업계의 매출순위를 뒤집고 농심의 1분기 라면시장 점유율을 70%까지 치솟게 한 짜파구리 열풍은 모디슈머의 대표적인 사례다. (글_ 임현숙 자유기고가)

모디슈머 열풍, 내 마음대로 섞어먹는 별미 기발하고 빠르고 거기에 저렴하기까지



모디슈머란 무엇일까?

모디슈머는 수정하다, 바꾸다의 modify와 소비자를 뜻하는 consumer의 합성어로 제조업체에서 제시하는 기존 조리법을 따르지 않고 순서를 바꾸어 색다른 맛을 내거나 서로 다른 두개의 제품을 창의적으로 재창조하여 제품을 즐기는 소비자를 말한다. 이들에게 제조업체의 조리법은 참고용일 뿐이며 트랜스포머의 레시피를 선보인다. 모디슈머의 원칙은 있는 식재료, 쉽게 구할수 있는 재료의 활용이며 간편하고 빠르게가 핵심이다. 모디슈머는 개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움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신소비형태의 하나로 늘어나는 일인가구의 증가가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석식품을 자주 이용하게 되는 나홀로족들이 자주 먹는 즉석식품의 식상함에 이색적으로 먹으려는 시도가 늘면서 새롭고 기발한 레시피들이 탄생하고 SNS를 통해 자신의 체험과 타인의 경험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자신만의 개성을 반영해 전혀 새로운 제품으로 재창조하여 확산시키고 이것이 공중과 방송을 타면 더 큰 파급력을 지니게 된다.

모디슈머의 시작

전 국민이 자신만의 레시피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는 라면에서 출발하였다. 성공적인 모디슈머 사례로 개그맨 이경규의 '꼬꼬면'은 하얀 라면 트렌드를 만들어냈었다. 하지만 이제는 라면을 넘어서 음료, 시리얼, 즉석밥 등 다양한 식품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모디슈머 집포까지 생겨나고 있다. 직접 커피콩을 볶고 취향에 따라 핸드드립 커피를 직접 내려 마실 수 있는 카페나 여러 라면을 섞어 끓이거나 육수도평



재료를 마음대로 골라 끓여먹을 수 있는 라면 뷔페, 원하는 토핑을 골라 얹어 먹을 수 있는 셀프 아이스크림 전문점이나 셀프 케익 전문점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모디슈머의 열풍엔 연예인들의 레시피도 한몫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들이 소개하는 야식은 그다음날이면 포털사이트에 검색어 상위에 랭크될 만큼 인기를 끈다. 배우 지성이 소개한 물만두를 밥에 비벼먹는 만두밥이나 비빔면에 골뱅이 통조림과 오이를 넣어 완성한 김동완의 골뱅면, 꼬꼬면에 구운 햄과 계란 프라이를 얹은 존박의 홍콩라면, 또 이훈이 소개한 운명의 닭가슴살 초밥은 시판용 초밥세트에 밥 대신 닭가슴살과 두부를 넣은 다이어트 음식으로 큰 인기를 끌고있다. 입맛도 없고 외식하러 나가기도 귀찮고 불 앞에서 요리하기는 더더욱 싫은 요즘 같은 무더운 날씨에 모디슈머의 기발하고 간단한 레시피는 한 끼를 빠르게 해결하게 한다.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제품을 발전시켜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모디슈머가 새로운 트렌드를 소비자에게 널리 퍼뜨려주고 이를 또 회사에 알려주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도전과 실험정신으로 무장한 모디슈머는 식품에서 나아가 패션과 화장품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서로 다른 스타일의 옷을 믹스매치하거나 여러 화장을 섞어 개성 있는 메이크업을 즐기는 등 모디슈머는 새로운 소비자층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recipe

요즘 핫한 모디슈머 레시피

짜파구리

짜파게티 면과 너구리 면을 삶다가 물을 조금만 남기고 따라 버린다. 짜파게티 짜장 분말 스프와 너구리 스프 반을 넣고 비빈다(너구리 스프는 개인기호에 따라 가감). 방송에 소 개된 후 너북이(너구리+떡볶이), 오파게티(오징어 짬뽕 라면 +짜파게티)등으로 응용

레이먼 킴 셰프의 나초 오믈렛

역대 야간매점 모든 메뉴를 제치고 최근 1위에 등극한 화제의 레시피. 얇게 슬라이스한 감자를 팬에 깔고 계란 3개를 푼 위에 볶아둔 마늘, 양파, 고추, 파프리카를 올리고 소금, 후추로 간을 한다. 케첩, 핫소스, 모자렐라 치즈를 뿌리고 뚜껑을 닫고 익힌다. 양면을 골고루 익힌 후 슬라이스 치즈를 넉넉히 뿌리고 그 위에 나초를 잘게 부숴 올리면 완성.

시리얼 스프 또는 시리얼 요거트

시리얼 위에 뜨거운 스프 또는 요거트를 얹어 먹으면 끝

지성 만두밥

물만두와 즉석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운 뒤 간장을 섞어 비비면 완성. 물만두 대신 잡채를 넣으면 잡채밥이, 김치만두를 넣었다면 김치밥이 됐다는 다양한 응용 레시피로 발전. 배우 지성이 해피투게더 야간매점에서 소개.

봄 플레이크

같은 TV 프로그램에서 방송인 봄이 선보였는데 봉지 꽤 잘게 부순 건빵에 우유와 별사탕을 넣으면 끝. 대한민국 군인들이 오래전부터 먹어왔던 간식이기에 군대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남성들에게 특히 인기.

콜라찜닭

안동찜닭에 간장소스 대신 콜라를 넣으면 단맛도 보장되고 닭살을 연하게 만들어주어 특별한 찜닭이 된다고. 이미 콜라찜닭은 네티즌들에게 광범위한 인기를 얻어 블로그는 물론 요리책에 실릴 정도라고.

헛개라이프 모히토

숙취해소음료 헛개수에 모히토 시럽을 넣으면 칵테일로 완성.

변신왕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에 파워에이드를 1:1 비율로 섞고 막걸리와 사이더를 섞는 막사 제조시 스프라이트를 살짝 넣어준다거나 또 이 스프라이트 막걸리에 꿀을 넣어 얼린 뒤 먹으면 스프라이트 막걸리 셔벗이 된다고.

스팸 뽕글이

케이بل TV의 군대 드라마 푸른거탑에서 등장한 군대음식으로 봉지라면을 봉지 속에서 적당히 부수고 스프, 스팸을 썰어 넣고 기호에 따라 고추, 파 등을 넣고 라면 봉지에 직접 뜨거운 물을 붓고 입구를 막으면 3-4분 후에 완성.

해외의료봉사활동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희망이 넘치는 세상을 꿈꾸다

Global INHA



연도	국가/도시	활동 내용	진료과	진료실적	참가인원	특이 사항
2007	몽골 준모드		가정의학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마취통증의학과	745	28	의과대학 연계 (의대생 지역봉사 참여)
	2008	스리랑카 누와라엘리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피부과	1,021	7
	몽골 준모드		안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마취통증의학과	642	31	인천 남구청 연계, 의과대학 연계 (의대생 지역봉사 참여)
2009	스리랑카 함반토타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1,411	10	어린이재단 후원자 방문단 연계 지역봉사 공동 실시
	몽골 울란바토르		소화기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476	7	한국청년회의소 지역봉사 공동 실시
	스리랑카 아비사벨라		성형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30	5	구순구개열 현지 수술
2010	몽골 울란바토르		외과, 심장내과, 마취통증의학과	378	5	계양청년회의소
	우간다 키유니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감염내과	1,463	12	어린이재단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나보이		마취통증의학과, 안과, 정형외과, 심장내과, 소아청소년과	1,026	1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연계

연도	국가/도시	활동 내용	진료과	진료실적	참가인원	특이 사항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마취통증의학과, 가정의학과, 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1,675	14	아이티 대지진 긴급의료지원
2011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나보이		마취통증의학과, 안과, 정형외과, 심장내과, 소아청소년과	1,014	1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ODA사업 연계
	몽골 울란바토르		마취통증의학과	513	8	남동JC/대한항공
	우간다 키유니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감염내과, 재활의학과	1,332	8	어린이재단
	인도 망가룬		소아청소년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내과	599	9	포스코건설
2012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나보이		소화기내과, 안과, 정형외과, 심장내과, 소아청소년과	1,400	18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연계 아리랑요양원 (강제이주 1세대 요양원) 의료봉사
	베트남 연짜공단 인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700	11	포스코건설 대학생봉사단 연계 지역봉사 공동 실시
2013	몽골 울란바토르/바가노르		소화기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통증클리닉	1,000	10	대한항공 사막화방지사업 지역 의료봉사 공동 실시 몽골 국립 제2병원 공동 실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나보이		소화기내과, 안과, 정형외과, 심장내과, 소아청소년과	1,300	18	타슈켄트 국립 안과병원 현지 수술 3건
	베트남 구찌	8. 11 ~ 8. 16일(6일간)	가정의학과	700	10	포스코건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연수구약사회 연계
우간다 키유니	8. 10 ~ 8. 18일(8일간)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감염내과	1,100	10	어린이재단 연계 말라리아 퇴치 프로젝트	

Exclusively for foreigners Hospital

최상의 서비스, 외국인 전용병동

기억에 남고 사랑받는 18층

러시아어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즈뜨라스비예 (안녕하세요?)

오친 브리아뜨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글_ 김순봉 수간호사 / 외국인 전용병동)



우리 병동의 간호사를 소개할까요~

외국인 전용병동인 저희 18병동은 8명의 간호사와 수간호사, 병동관리원으로 구성됩니다.

병동의 간호사들은 각 부서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특별히 선별되어 온 경력 간호사들로 책임감이 강하고 친절하며 애사심이 강한 직원들이 모여 있어요. 장점이라고 말하긴 쑥스럽지만 외모도 마음씨도 멋진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입니다. 개개인의 개성들이 매우 뚜렷하지만 직원 간에 서로 이해하며 돕고, 병원 일을 위해서라면 항상 긍정적이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하는 모범 직원들의 집합입니다.

우리 병동은 언제 생겼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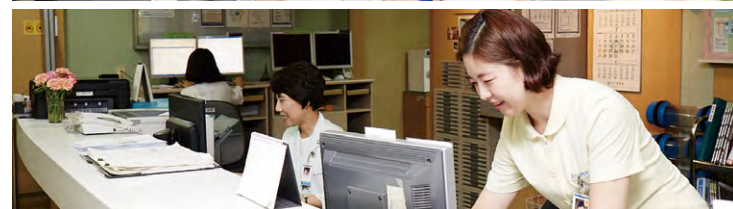
18병동은 인하대병원을 개원(1996년) 시점부터 VIP 병동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남녀노소 막론하고 환자 상태와 상관없이 VIP 병동을 원하는 입원 환자라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갓난 소아환자, 분만환자, 일반 수술환자, 검사환자, 중환자, 건강검진 수진자, 보호자 없는 외국인환자, 직원가족, 임종환자 등 다양한 환자들이 입원하고 퇴원하는 병동입니다. 또한, 1년 전 만해도 VIP 병동으로만 운영되었는데 최근에는 VIP 환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입원 환자가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외국인 전용병동으로 칭하고 모든 외국인환자에게 병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동이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목표는 입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신뢰와 믿음으로 참 간호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신의 간호정보와 기술을 습득하고 실천하며, 정직한 간호를 수행합니다. 또한 정확한 설명으로 믿음과 신뢰를 주고 바른 생각과 몸가짐으로 간호사의 품위를 지켜 인하대병원의 이미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의료 서비스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병원의 핫 이슈는 “환자안전”입니다. 특히 저희 병동의 경우는



헌마음으로 잘 어우러져 근무하는 외국인 전용병동 간호사들



편안한 의사소통은 물론 최상의 서비스까지

외국인들이 보호자 없이 혼자 입원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환자안전 을 위한 의료진들의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투약이나 주사 등 모든 의료행위 시마다 환자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름이 어려운 러시아 환자들의 경우 더 세심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수술 후 운동 중에 낙상하지 않도록 밀착 관찰해야 하며, 침상에서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닦아주고 체위변경을 수시로 해야 하는 등의 업무 또한 중요합니다. 책임감 있는 의료서비스 노력의 결과 낙상 등의 안전사고는 한 건도 없었으니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병동만의 장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외국인 환자가 많이 입원하다 보니 간호사들이 자연스럽게 외국어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는 보디 랭귀지 뿐 아니라 러시아어로도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코디네이터 통역사가 없는 시간대에 외국인 환자와의 의사소통은 병동간호사들의 간단한 회화로도 환자들이 신뢰하고 치료 받으며 만족해 하는 것을 봅니다. 그에 따라 간호사들의 자긍심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VIP 병동이므로 의료진이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 회진이나 협의진료, 검사, 예약 등 기타 업무들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당연히 입원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식사, 시설, 문화 공간 등 시설 면에서의 장점을 알려주세요

외국인환자를 위한 식사가 영양팀에서 개발되어 러시아식, 유럽식 등 원하는 식사가 제공됩니다. 특히 육류보다는 생선 요리를 더 즐기는 러시아 환자들은 맞춤형 식사 제공에 대해 만족해 합니다. 병

실에서는 저녁 시간이 되면 향구 너머로 석양을 볼 수 있으며, 인천의 자랑인 인천대교는 멋진 야경을 선물합니다. 또한 눈앞에 펼쳐지는 인천항에 가끔씩 입항하는 외국 크루즈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 또는 아쉬웠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러시아 경찰관인 보OO 씨는 보호자도 없이 인천공항에서 직접 본원으로 입원하여 수술했던 환자입니다. 수술 회복 중에 가족의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고 노트북을 통해 경찰관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여 가족처럼 생각 되었습니다. 보OO 씨처럼 간호사들과 친밀한 관계 형성이 잘 되어 퇴원할 때는 감사 편지를 써주며 눈물 흘리기도 하고 포옹하기도 합니다. 보호자의 역할까지 담당했던 간호사들은 매우 큰 감동과 보람을 느낍니다. 또 다시 방문하게 될 때는 초콜릿을 가져오거나 한아름 꽃다발을 선물하는 등의 감사 표현을 합니다. 러시아인들은 꽃을 좋아하는 감성적인 마음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나 경제적 문제 혹은 상태가 위독하여 조기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안타깝게서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우리 병동 직원의 다짐

더 많은 외국인환자와 VIP 환자에게 입원기간 동안 가족처럼 편안한 서비스를 받게 하여 기억에 남고 사랑받는 18층 병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모두가 외국어 공부에 매진하여 편안한 의사소통을 통한 최상의 서비스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18층 외국인전용병동 ☎ 032-890-3850

* 안녕하세요? 저는 파란자켓입니다

“많이 불편하십니까? 네, 제가 그곳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불편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검사 잘 받으시고 안녕히 가십시오. 진료 잘 받으시고 빨리 나아지기 바랍니다.”

(글_ 표성재 감독방사선사 / 핵의학과)

2013년 5월 우리 인하대병원에서도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는 신개념 동행서비스인 ‘파란자켓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평일 오전 9시 30분 ~ 11시 30분까지, 오후 2시 ~ 4시까지 파란자켓을 입은 직원들은 밝은 미소와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병원을 찾은 내원객들에게 먼저 다가간다. 특히 파란자켓 서비스는 본원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한발 먼저 다가간 진심 어린 도움의 손길과 배려의 마음을 전하여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동행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문제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또한 병원 중간관리자 이상의 직책 있는 직원이 직접 현장에서 안내를 함으로써, 불편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서 서비스의 질과 문제 해결력을 높였는데 큰 의미가 있다. 병원장님께서도 “파란자켓 서비스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하대병원의 의지를 표현하는 서비스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어이쿠 선생님이 이런 걸.....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평소 우리 과에 자주 내원하시던 고객이 나를 알아보고 하시는 말씀이었다. 지정된 날에 파란자켓 FM(Flow manager)을 명 받고 지하 1층 라운지에 나갔다. 많은 내원객들이 여러 통로를 거쳐 들어오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으로 혼자 오시는 분, 보호자의 부축을 받으시는 분, 두리번거리며 어딘가를 찾으시는 분 등등..... 누구에게 먼저 가야 하나를 생각하는데 벌써 나에게 다가와서 영수증 용지를 보이며 안내를 요청하신다. 걸보기에도 서비스맨처럼 보이는지 힐끔거리며 지나가신다. 퇴원하시는 어르신 부부의 짐이 많아 보여 짐 보따리를 잡아들며 ‘퇴원하십니까? 건강은 회복되셨습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하며 병원현관 택시 승강장의 택시 안까지 동행서비스를 해드렸다. 어르신들께서는 갑작스런 서비스에 말을 잊지 못하셨지만 감사하더라란 말씀을 되풀이하셨다. 또 오후 시간 파란자켓 FM 담당자의 활동에 대해서도 들어보니 처음 입원하는 환자의 병동까지 동행



▲비 오는 날 차 가지러 간 어머니를 대신하여 퇴원 환자를 보살피는 일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검사부서까지 안내

안내를 하면서 무거운 입원물품 보따리를 들어다 드리고 ‘치료 잘 받으시고 빨리 쾌차하세요’ 라고 했더니 매우 고마워 하셨고 입원병동 직원들도 만족해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서비스에 대하여 아주 고마워하시는 고객들을 보며 글자로만 익히던 고객감동이 이런 것인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인천이 광역시이긴 하지만 우리 인하대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은 손꼽는다. 그래서 내원객들의 대부분은 원내 진료 동선을 복잡해하며, 동네 병원처럼 빠른 원무 처리를 기대하면서 기다림에 지쳐 하신다. 대학병원의 다양한 업무는 20여 년을 일해 온 나로서도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파란자켓을 입고 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영화 속 ‘아이언 맨’ 이 강철 자켓을 입으면 변하듯이 우리 병원 내원객의 서비스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선 현장의 기존 업무자와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함은 기본이다. 대부분의 경우 고객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해결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현장 직원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내가 먼저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고객들에게도 존중 받는다. 그것이 현장 직원들의 자신감을 충만시켜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파란자켓 서비스의 궁극의 목적은 형식이나 입으로만 하는 친절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므로.....

본원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한 발 더 앞서서 다가가고 먼저 알아서 해결해주며 진심 어린 도움의 손길과 배려의 마음을 전하여 고객이 감동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직원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파란 자켓 Flow manager가 다음과 같이 도와드립니다.

- 1. 파란 자켓 활동시간: 평일 오전 9:30~11:30 오후 14:00 ~ 16:00
- 2. 파란 자켓 활동영역: 지하 1층 ~ 3층 외래진료 및 검사공간
- 3. 파란 자켓 활동내용: 고객의 진료, 검사 시 불편사항 돕기, 도움이 필요한 고객과 동행하기 등
- 4. 파란 자켓의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 (원내 호출방법 사용)
 - 지하1층 : 호출 8700 ●1층 : 호출 8701, 8704 ●2층 : 호출 8702 ●3층 : 호출 8703

* Blue Jacket Service

파란자켓 서비스의 시작은 미국 클리블랜드병원에서부터이다. 병원의 많은 부속건물 속에서 진료받기 어려운 내원객들을 위하여 병원 시니어 직원들이 안내서비스를 한 것이다.



간혹 산골이나 농촌 지역의 집배원 미담이 훈훈한 감동을 안겨줄 때가 있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22년간 인천의 선행천사 집배원으로 묵묵히 활동해온 권병우 씨다. 그는 남인천우체국 집배원으로서 22년간의 봉사활동으로 우정청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칭송을 한몸에 받고 있다. 올해 49세, 고향은 전북 순창, 미소가 가득한 훈남 우체부 아저씨다. 공고를 졸업하고 1988년경 서울로 상경, 인천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90년 남동공단에서 용접일을 하면서였다. 어린 시절부터 우체국 집배원을 동경해왔다는 권병우 씨는 그 시절, 공장을 방문하는 집배원 아저씨와 점심을 같이 먹어 가며 많은 대화를 나눴다. 이듬해 우체국 집배원 모집시험에 합격한 후 첫 부임지가 지금의 남인천우체국이었다.

당시 용접일보다 급여도 적고 사회적 이미지도 신통찮은(?) 집배원 세계로 뛰어든 권병우 씨에게 편잔을 주는 친구들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권병우 씨는 오랫동안 롤모델로 그려온 집배원 배달일을 통해 주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기대 이상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꼈다고..... 요즘은 우체국에 정규직 집배원으로 취직하길 원하는 하늘의 별따기와 같으니 22년전의 권병우 씨는 선견지명이 있었던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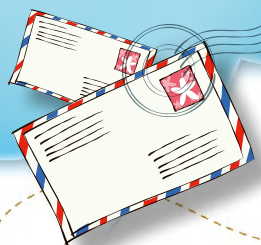
오전 7시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 일요일만 쉬고 늦으면 밤11시에 퇴근하는 집배원 생활을 22년간 근무하면서, 신혼여행 3박4일과 부친상으로 3일 쉰 것을 제외하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실하게 임해온 권병우 씨. 그 바쁜 시간 속에서도 선행천사로서 묵묵히 봉사활동까지 해온 배경이 궁금했다.



남인천우체국의 선행천사 권병우 집배원 남을 위한 봉사? 저 자신이 즐거워요!

화가 고호의 대표작 중 '우체부 조제프 롤랑' 이 있다. 고갱과 다문 뒤에 자기 귀를 자른 고호를 동네 사람들은 미치광이로 몰아 감금하려 했다. 이때 고호를 유일하게 돌봐준 사람이 롤랑이었다고 한다. 푸른 제복에 금관 장식, 집배원 모자를 쓰고 있는 초상화는 마음씨 좋은 우체부 아저씨의 전형적 모습이다. 고호가 롤랑을 그리던 1889년에도 집배원의 품성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글_ 권영선 / (사)희망배달본부 본부장)



봉사는 자신이 즐거워진다는 권병우 씨의 행복한 미소



집수리 봉사 후 독거노인과 함께



남동공단 시절부터 회사 내 봉사모임에 참여하여 몇몇 동료들과 함께 김포 장애인시설에 목욕봉사를 하러 다녔던 권병우 씨는 집배원이 된 후, 우체국 내 봉사모임(지금은 '하늘꿈 봉사단')에 참여하여 22년간 동료들과 함께 지역주민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매월 저소득가정의 천장 및 화장실 수리, 도배와 장판 시공, 보일러 시공 등의 집수리를 지원한다. 회원들의 정기 회비와 우체국의 현금 혹은 현물 지원 등으로 경비를 조달한다. 구청과 연계하여 진행할 때도 종종 있다. 개인적으로는 10년간 주안동 신기촌(당시 빈민촌 지역)의 집배원으로 독거 할머니들의 손발이 되어 장보기와 김치 지원을 도맡았다. 이 과정에서 부인의 도움도 적지 않았다.

보통 집배원은 본인의 희망이나 지역 내 민원이 생기면 담당 지역이 변경된다. 권병우 씨는 22년간 담당구역의 변경이 거의 없었다. 주안동에서 10년, 문학동과 학익동에서 8년을 근무했다. 단 한 차례의 지역 민원도 없었고 사건·사고도 없었다. 모든 게 다 행운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지역 할머니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권병우 씨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이 중 학익동 김서운 할머니(82세)가 있다. 이복출신으로 폐지를 주위 생계를 유지하던 김 할머니는 공동화장실을 쓰는 50가구의 판자촌 단칸방에서 아들이 먼저 죽고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지붕은 비가 새고 한겨울엔 연탄난방도 못 한 채 추위에 떨고 계셨다. 집수리를 해드린 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토바이 소리만 나면 집 밖으로 나와서 반기셨다고.....

권병우 씨는 5년 전까진 일요일도 근무해야 했고, 친인척 경조사에 참여해본 적이 없다. 가족들에게 미안함이 있긴 하지만, 가족들은 권병우 씨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2011년과 2012년 2회에 걸쳐 지식경제부장관 정보통신장 수상, 2011년 사회복지 시민사회부문 공로상, 2012년 경인지방우정청장 최우수상(강의경연대회 집배분야), 2013년 국무총리 표창장을 수상했다. 매일 평균 11시간 이상의 우편배달업무에다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까지 22년간을 한결같은 미소천사로 활동해온 권병우 씨는

경인지역의 집배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나갈 때도 많다. "무엇보다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입니다. 낮에는 배달이 어렵겠다고 했지만, 그날 밤 늦게라도 배달을 하면 고객이 무척 즐거워하세요. 이런 일이 쌓이다 보니, 점점 더 열심히 더 많이 베푸는 마음으로 변해 가더라고요." 그의 얼굴에는 정말 일이 즐거운 사람의 웃음이 가득하다.

직원들을 위한 친절교육에서 그가 강조하는 메시지는 한결같다. 고객이 아무리 어려운 부탁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안 된다'는 언급을 하지 말라는 것. "안 된다고 하면, 고객과 트러블이 생깁니다. 하지만 해드리고 싶은데 조금 지연되겠다든지 해서 긍정적 혹은 우회적으로 얘기하면 고객들은 모두 양해하기 마련입니다."

"남을 위한 것이 봉사라고 생각했는데, 저 자신이 즐거워지는 것을 알게 된 거죠. 2~30명씩 집수리 봉사를 할 때 우리 봉사단원들의 얼굴이 평상시 일할 때와 달리 아주 밝고 즐거운 모습이거든요. 봉사란 나도 즐겁고 도움받는 사람도 즐겁고, 사회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죠." 최근에 자신만 행복한 것은 아닌지 가끔 돌아본다는 권병우 씨의 소망을 들어본다. "우체국 집배원은 자기 몸을 불살라야 하는 일이에요(웃음). 소망이라면, 정년 때까지 지역주민들에게 작은 정성을 보태고, 모든 직원들이 안전사고 없이 근무하길 바라는 거죠.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지만,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해주는게 미안할 뿐이죠." 동료들에게 '권 박사', 혹은 '지식기반'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권병우 씨는 자녀들도 집배원의 길을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한다.

우리는 집에서 편하게 우편물을 배달받지만 우체국의 불은 밤 11시가 넘도록 꺼지지 않는다. 주위의 우체국 집배원 아저씨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나누면 어떨까? 희망은 그렇게 시작되고 전염되는 것이 아닐까?

- 경인방송 희망배달본부 ☎ 032-830-1004
- 남인천우체국(남동구 간석2동 520-1) ● 권병우 집배원 032-453-0500

선크림 사용 '짱' 하게 하기

한 번 더! 덧바르면 기능 최대 증가



❗ 항생제를 복용 중인데 선크림을 꼭 발라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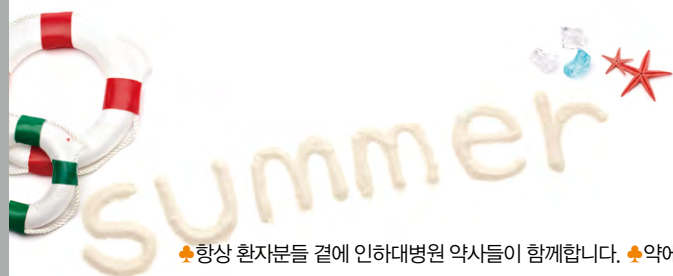
A 복용 중 치료목적과는 상관없이 햇빛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키는 약물이 있습니다. 햇빛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되면 화상을 입기 쉬고 피부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항생제(quinolones, tetracyclines 등)와 진통제 등에서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당 약물 복용 중에는 햇빛으로부터 노출을 피하고 필요한 경우 선크림을 바르거나 긴소매 옷을 입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선크림을 바르면 피부에서 Vitamin D 흡수를 방해하나요?

A 선크림의 사용으로 vitamin D의 흡수가 감소되지 않으며, 오히려 선크림의 사용이 피부암의 발생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 팔, 얼굴을 1주일에 2~3회, 15분간(정오 시간) 햇빛에 노출시켰을 경우 우유 두 잔(500ml) 섭취했을 때와 비슷한 양의 Vitamin D가 몸에서 생성됩니다.

❗ 적당한 선크림을 선택하고 바르는 방법은?

- A** 1) 선택: UVA와 UVB를 모두 차단해주며, SPF가 최소 30 이상인 것을 선택합니다. 여드름이 있는 경우 titanium dioxide, zinc oxide가 포함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는데 일부 환자에서 모공을 막아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 바르는 방법: 선크림은 외출 30분전에 바르고 15분 후 다시 한 번 덧바르면 피부 보호 기능을 최대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지속해서 햇빛에 노출 시에는 2시간 마다, 그리고 수영, 땀이 난 후 혹은 수건으로 닦아낸 경우 다시 덧바라야 합니다. 이때 귀, 코, 입술, 뒷목 등에도 꼼꼼히 발라줍니다.
- 충분한 피부보호 효과를 위해 다음과 같은 양이 추천됩니다.
(선크림 추천 양 - 얼굴·목: 2.5 ~ 5g, 팔·어깨·몸통: 5 ~ 7.5g, 다리·발등: 10 ~ 12.5g)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합니다.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 3327 | 야간 032) 890-3315

Cooperation 인천시광역의료원



“어느 누구라도 의료의 손길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을 위한 세월, 81년

인천광역시의료원은 81년의 역사를 갖은 인천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이다. 주변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병원이다. ‘값 싸고 질 높다.’ 라는 편견 가진 분들에게 방문을 권하는 조승연 원장은 자신감으로 가득하다. 요즘 지방 의료원에 대한 말이 많다. ‘만성 적자’라는 꼬리표를 물려주고 호되게 꾸짖는 소리가 많지만 그만큼 희생할 수 있는 곳은 의료원 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한다.

“의료원에 대한 인식이 참 안타깝습니다. ‘남았다, 값 싸다, 노인·가난한 자들만 가는 곳이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더라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그런 이들과 온전히 품어줄 수 있는 검증된 병원인 곳이지요.”
공공병원은 어디까지나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고 조 원장은 강조한다.

착한 치료를 통한 착한 병원

“어 없으면 워디서 우릴 받아 주겠어. 돈 없고

보호자가 없는 차상위계층 노인이 입원한 경우엔 ‘보호자 없는 병실’을 통해 무료 간병인도 지원해준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진료지원 사업 등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힘든 양반들 도와주는 곳 생각보다 없어.”
언젠가 병원 벤치에 앉아 있는 한 노인 환자는 의료원에 대해 ‘착한’ 병원이라 평가한 적도 있다. 적정 진료, 무연고자·차상위 계층 진료, 보호자 없는 병실, 국가지정입원치료병동, 저렴한 비용 등은 의료원이 갖는 장점이다.
보호자가 없는 차상위계층 노인이 입원한 경우엔 ‘보호자 없는 병실’을 통해 무료 간병인도 지원해준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진료지원 사업 등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인하대병원과 저희 의료원의 관계는 앞으로 상생 발전하는 길만 남았죠, 의료원은 그저 인하대병원과 다양한 의료 교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민이 기댈 수 있는 공공의료 중심병원으로의 발전을 꿈꾸는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 그에게 깊이 스며든 지역 봉사과 상생의 아름다움이 묻어난다.

♣인천시 동구 방축로 ☎ 032-580-6000



▲조승연 원장

국내 최초 의료기관 전 부문 JCI 재인증 성공(세계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

인하대병원이 대한민국 의료기관 최초로 의료원 전 부문(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국제의료기관인증위원회) 재인증에 성공했다. 이로써 인하대병원은 지난 2010년 7월 21일 최초인증에 이어 한층 안정되고 발전된 '국제환자안전시스템'을 바탕으로 '세계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특히 이번 재인증은 본원은 물론 인천공화의료센터, 임상시험센터 등 의료원 전 부문에 대하여 인증 유지에 성공하여 더 큰 의미가 있으며, 진료 및 시설, 진료지원 부문 등 병원 시스템의 글로벌화 정착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쾌거이다.



상급종합병원 최초 '신개념 포괄 간호서비스' 시작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인하대병원 내방 '보호자 없는 병원 현장' 답사 및 격려)

7월 22일(월),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이 인하대병원(병원장 박승림)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중 상급종합병원으로써 최초로 참여하고 있는 인하대병원의 사업진행 현황과 추진계획 등에 대한 현장 답사를 위해 진행되었다. 진영 장관은 인하대병원의 '우리가족 돌봄 병동', 즉 보호자 없는 병동을 비롯하여 국제진료센터, 국가 지정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의생명연구원 등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13년도 민관합동 재난(화재)대비훈련 성료



5월 15일(수), 인하대병원(병원장 박승림)은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서장 이근태)와 함께 '2013년도 상반기 민관합동 재난(화재)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상황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며, 인천 중부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신속 정확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실시되었다.

2013년 5월 23일(목) ~ 24일(금), 인하대병원(병원장 박승림)은 <제5회 유타 - 인하 DDS 및 신의료기술개발 공동연구소 심포지엄> 및 <제7회 지능형 약물전달시스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유타 - 인하 DDS연구소 뿐만 아니라 바이오의약품 맞춤형 약물전달시스템 융합연구단, 진단/치료용 고분자소재 연구센터,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함께 진행했으며, 바이오제약 사업본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경제자유구역, 인하대병원, 인천도시공사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제5회 유타-인하 DDS 및 신의료기술개발 공동연구소 심포지엄' / '제7회 지능형 약물 전달시스템 국제심포지엄' 개최



위드미 재활요양병원 및

로하스 인천요양병원과 협력병원 협약 체결



5월 22일(수), 인하대병원은 위드미 재활요양병원 및 로하스 인천요양병원과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인하대병원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 협력의료시스템의 중심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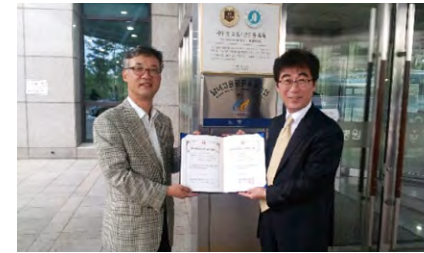
'응급 일일 입원실' 오픈 - 신개념 응급의료서비스로 환자 만족도 제고



2013년 6월 3일(월), 인하대병원(병원장 박승림)은 '응급 일일 입원실'을 오픈하여 보다 쾌적하고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인하대병원은 응급의료센터에 장시간 체류하는 환자를 위한 응급 일일 입원실을 오픈한 입원 대기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응급의료센터의 체류시간을 줄이고 일반병동에서 제공하는 동등한 의료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2년 연속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증 획득

6월 17일, 인하대병원은 2년 연속 한국화재보험협회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한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이 우수함을 인정받았기에 이룬 쾌거다.

인하대병원, 인천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와 지정병원 협약 및 의료봉사 실시



인하대병원이 인천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와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5월 14일 진행된 이번 협약으로 인하대병원은 인천시 민간 어린이집 직원 및 자원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건강 지킴이가 되고자 한다. 6월 15일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제회 행복한 가정 만들기' 행사에 의료진 및 구급약품을 지원하며 사회공헌활동도 함께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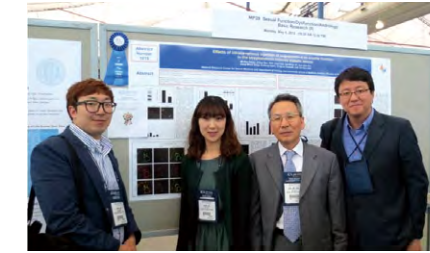
중국대사관과 '지정병원' 협약 체결 - 인천 유일 중국비자 검진 의료기관



7월 2일 (화), 인하대병원(병원장 박승림)은 중국 대사관(대사 장신선)과 '건강검진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인하대병원은 향후 2년간 중국 비자신청 시 인천지역 건강검진 지정병원으로 선정되어, 중국 비자발급을 위한 건강검진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중국대사관은 인하대병원 특유의 성실과 친절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의료서비스의 신뢰로 협약을 체결, 지난 2007년부터 이어오던 계약관계를 연장하게 되었다

성의학 특성화 센터 서준규·류지간 교수팀, 2013 미국비뇨기과학회(AUA) 우수 포스터상 수상



성의학특성화센터 비뇨기과 서준규·류지간 교수와 권미혜, 송강문 연구원은 5월 4일부터 8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제108회 2013 미국비뇨기학회 (American Urological Association annual meeting, AUA)'에 참석하여 Sexual function/Dysfunction/Andrology : Basic Research 부문에서 '우수 포스터상 (AUA Best Poster Winner)'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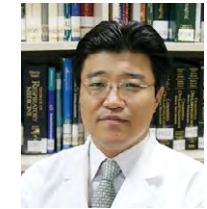
치과 윤정호 교수팀, 대외 학회서 논문 포스터 우수상 수상



인하대병원(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치과학교실 - 치주과) 윤정호 교수팀은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2013년 제15차 한국조

이비인후과 김규성 교수, 제20차 세계이비인후과학술대회에서 연구주제발표 및 좌장으로 활동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 김규성 교수가 지난 6월 1일부터 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제이비인후과연맹 '제20차 세계이비인후과학술대회'에서 '어지럼 진단 및 치료가 가능



한 IT 융합의료기기'의 연구주제 발표로 큰 호응을 얻었다. 어지럼증 및 평형 의학 분야의 전문가인 김규성 교수는 이날 "2년 내 재발성 어지럼으로 고생하는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공개하였다. 한편 김규성 교수는 최근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한 특허취득 및 기술이전을 이루어 의료기기의 미래융합산업화를 선도하고 있다.

응급의학과 김준식 교수, 대한임상독성의학회 회장 취임



인하대병원 응급의학과 김준식 교수가 2013년 6월 14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광사홀에서 개최된 2013년도 대한 임상독성의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2년 임기인 회장에 취임되었다.

이비인후과 김영호 교수, 해외학회 구연발표 및 학술상 수상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 김영호 교수가 유럽 알레르기 학회(EAAC)에서 'Anti-allergic effect of anti-Siglec-F through reduction of eosinophilic inflammation in murine allergic rhinitis'라는 주제로 구연 발표를 진행했다. 김영호 교수는 이 주제에 대하여 유럽알레르기학회(EAAC)로부터 학회 등록비 및 학회 기간 중 숙박비, 500유로의 상금 등을 부상으로 하는 'Travel grant'를 수상하였으며, 또한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로부터도 '알레고파마 학술상'을 수상했다.

아름다운 기부소식

익명의 한 후원자께서 지난 6월 12일 신관건립기금으로 일천만 원을 기부하여 주셨습니다. 후원자께서는 “인천에서 40년 넘게 개원의로 근무하면서 인하대학교를 제2의 모교로 생각하게 되었고, 인하대병원이 신관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움이 되고 싶어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혀 인하대병원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하대병원을 향해 보내주시는 관심과 후원에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인하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사무국장)

박승림 의료원장 정형외과 연구기금 전달



지난 6월 22일, 정형외과 25주년 기념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박승림 의료원장은 정형외과 연구기금으로 이천만 원을 전달하였다. 정형외과 교수이기도 한 박승림 의료원장은 정형외과 연구활동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후원의 뜻을 밝혔다. 이 밖에도 박승림 의료원장은 삼천만 원을 신관 건립기금으로 기부하는 등 병원발전을 위한 후원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건강문화 최고경영자과정 발전기금 전달식

건강문화 최고경영자과정 원우들의 인하대병원을 향한 관심과 애정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11일, 경영문화 최고경영자과정 1기 원우인 경인기계 구제병 대표는 병원발전기금으로 일천만 원을 기부하였다. 지난해와 더불어 올해에도 인하대병원을 발전을 위하여 후원을 이어가고 있는 구제병 대표는 “인하대병



▲ 경인기계 구제병 대표 병원발전기금 전달



▲ 건강문화 최고경영자과정 원우회 발전기금 전달

원이 한걸음 더 성장하여 의학발전에 큰 보탬이 되는 의료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7월 19일, 제6기 건강문화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을 실시하여 지난 3월 6일부터 진행된 6기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또한 이날 수료식에서 발전기금전달식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건강문화 최고경영자과정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된 인하대병원이 인천지역뿐만 아니라 국내선도 의료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원우들의 마음을 모아 발전기금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파랑새 소식

여성암 센터 교육 및 유방암 환우회 행사 공지

- 일시 : 2013년 7월 17일(수), 2013년 8월 14일(목)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 내용 : 유방암 환자의 식이 유방암이란?, 재발 및 추후 관리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림프부종 관리 유방암 환우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지원 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장소 : 3층 2세미나실
- 대상자 : 유방암 환우 및 가족

5월 21일 인천 대공원 야외음악당 체육대회

인천대공원 야외음악당에서 파랑새 체육대회가 열렸다. 회원 100여 명과 조영업 교수, 장용선 전임의 및 여성암 센터 직원이 함께 참석하여 건강달리기, 공

치기, 훌라후프 경연대회, 장기자랑 등을 하면서 동심으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항암치료 중임에도 환우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각설이춤, 판토마임 등의 장기를 뽐내며 유쾌한 시간을 보냈으며 여성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햇빛을 보며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을 하겠다고 서로 다짐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방사선 치료, 항암치료 등을 하시는 분들에게 더 힘을 내서 치료를 받도록 격려하고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운동이 좋은가 서로 이야기하며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뜻 깊은 시간이였다.

다음 행사

- ▶ 7월 자유회 시간 장소 추후 공지 예정
 - ▶ 8월 여름휴가 입니다.
- 파랑새 여러분 시원한여름휴가 보내세요.

● 파랑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이름입니다.

- ▶ 문의 여성암센터 ☎ 032-890-2560
- ▶ 홈페이지 www.inha.com > 여성암센터
- ▶ 카페 cale.daum.net / inhabluebird

건강교실 안내

건강교실명	내 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유방암 환자 교육	유방암 환자의 식이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림프부종 관리 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 신청)	8/8(목), 9/11(수) 오후 2시 ~ 4시	3층 2세미나실	여성암센터 (032)890-2560
대장암 환자 교육	대장암의 이해 대장암 환자의 영양 - 교육을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바랍니다.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3층 2세미나실	암진료상담실 (032)890-3600,3638

공개강좌 안내

강좌 일정	제목	강사	장소 및 문의
2013. 09월 05일(목) - 오후 2시 ~ 4시	대장암의 날 건강공개강좌 대장암을 이겨내는 특별한 공부	외과 최선근 교수	본원 강당
2013. 09월 05일(목) - 오후 2시	급성심근경색과 급사	심장내과 우성일 교수	청천보건지소
2013. 09월 12일(목) - 오후 2시	신장질환 예방과 치료	신장내과 이승우 교수	
2013. 09월 25일(수) - 오후 2시	치매 진단과 예방법	신경과 윤혜원 교수	신세계아카데미
2013. 09월 26일(목) - 오후 2시	뇌졸중	신경과 윤혜원 교수	청천보건지소

●문의 : 교육수련부 ☎ 032-890-2641 ●일정은 참여단체 또는 병원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시회 안내

전시 일정	제목	참여 단체 / 작가	장소
2013. 08. 10 ~ 2013. 08. 30	아름다운 우리 산하	한국 산악사진사 협회	2층 갤러리
2013. 08. 31 ~ 2013. 09. 20	Over the rainbow展	윤선영, 신수진	
2013. 09. 21 ~ 2013. 10. 11	너를 그리다	석윤희	

●문의 : 홍보팀 ☎ 032-890-2608 ●일정은 참여단체 또는 병원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명예의

2013. 6. 8



출연 : 흥기천 교수/혈관외과 프로그램 : '메디컬뉴스' '메디컬뉴스' 내용 : 버거씨병의 예방과 치료

2013. 6. 20



출연 : 전용훈 교수/소아청소년과 프로그램 : SBS '우리아가 달라졌어요' 내용 : 소아 클레스테롤의 위험성

2013. 7. 4



출연 : 임종한 교수/직업환경의학자 프로그램 : KBS '뉴스타임' 내용 : 지하수와 암 발생 관계

2013. 6. 9



출연 : 응급 일일 입원실 전경 프로그램 : SBS '뉴스' 내용 : 응급 일일 입원실 개소

2013. 6. 22



출연 : 박승림 의료원장 프로그램 : MBN '종합뉴스' 내용 : JCi 재인증의 의미

2013. 7. 11



출연 : 임종한 교수/직업환경의학자 프로그램 : OBS '으랏차차 우리동네' 내용 : 석면의 위험성

2013. 5. 31



출연 : 이연지 교수/가정의학과 프로그램 : KBS '굿모닝 대한민국' 내용 : 북부비만의 위험성

2013. 6. 17



출연 : 방병욱 교수/소화기내과 프로그램 : 인천교통방송 '미추홀 매거진' 내용 : 식중독의 위험성

2013. 6. 23



출연 : 임종한 교수/직업환경의학자 프로그램 : MBC '시사매거진 2580' 내용 : 검은먼지의 공포

2013. 7. 6



출연 : 홍성빈 교수/내분비내과 프로그램 : 경인방송 라디오 '종합병원 - 암특집' 내용 : 전립선암의 원인과 치료

2013. 6. 3



출연 : 신정현 교수/피부과 프로그램 : YTN 사이언스 '의학칼럼' 내용 : 피부모기증

2013. 6. 18



출연 : 문연성 교수/안과 프로그램 : 인천교통방송 '리포터가 간다' 내용 : 연령관련 황반변성

2013. 7. 1



출연 : 김나래 교수/안과 프로그램 : 인천교통방송 '미추홀 매거진' 내용 : 여름철 눈병관리

2013. 7. 13



출연 : 신용은 교수/소화기내과 프로그램 : 경인방송 라디오 '종합병원 - 암특집' 내용 : 위암의 원인과 치료

2013. 6. 3



출연 : 백지현 교수/감염내과 프로그램 : 인천교통방송 '미추홀 매거진' 내용 : 진드기의 위험성

2013. 6.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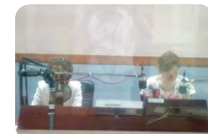
출연 : 임종한 교수/직업환경의학자 프로그램 : MBC '불만제로' 내용 : 물놀이 용품의 중금속 위험

2013. 7. 3



출연 : 김환철 교수/직업환경의학자 프로그램 : MBC '불만제로 UP' 내용 : 알루미늄 포스파이드 중독

2013. 7. 15



출연 : 김연수 교수/성형외과 프로그램 : 인천교통방송 '미추홀 매거진' 내용 : 유방재건술의 이해

2013. 6. 3



출연 : 임종한 교수/직업환경의학자 프로그램 : YTN '뉴스' 내용 : 삼각갑박의 건강

2013. 6. 20



출연 : 김동현 교수/소아청소년과 프로그램 : YTN '뉴스' 내용 : 일본뇌염의 예방접종

2013. 7. 4



출연 : 박현진 교수/신경외과 프로그램 : 인천방송 '인천초대석' 내용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소개

2013. 7. 20



출연 : 성도환 교수/비뇨기과 프로그램 : 경인방송 라디오 '종합병원 - 암특집' 내용 : 전립선암의 원인과 치료

인하대병원의

특별한 '내일' 을 만드는 가치기부

인하대병원 신관건립사업 - 국내 선도 특성화 센터

인하대병원 신관 건립사업은 초일류 의료기관의 표본을 제시하는 최첨단 병원으로 건립하고자 하며, 국내 Top 7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 동시에 더 나아가 인천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글로벌 의료기관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관은 중증·고령질환 전문병원 컨셉을 기반으로 국내 최고수준의 특성화 전문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특성화 전문센터에는 암센터, 심장·뇌·혈관센터, 류마티즘·관절센터 등을 배치하고, 최첨단 장비 도입 및 친환경 건축을 통하여 치유적 환경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시설개요

- 대지면적 : 약 5,467평
- 건축면적 : 약 2,000평
- 건물면적 : 약 26,000평
- 건축규모 : 지상 15층 지하4층
- 병상규모 : 약 600병상
- 준공예정 : 2016년 예정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 인하대병원을 사랑하고, 발전을 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 * 개인, 단체 및 법인 명의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 후원자께 정성을 다해 예우하겠습니다.

◆ 후원방법

- ① 약정서 작성_ 방문,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연락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② 납부방법_ 일시납 혹은 분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 온라인입금 : 하나은행 748-910002-39804 (예금주: 인하대병원)
 - ▶ 자동이체(CMS) :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의 지정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서비스입니다(정기출금일: 15일, 25일).

▶ 급여공제(교직원에 한함) :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분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납부 : 인하대병원 지하2층 행정지원실 내 발전기금팀

◆ 문의사항_ 궁금하신 내용은 발전기금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TEL : 032)890-3390/3391 FAX : 032)890-3000 e-mail : inhadf@inha.com

인하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사무국